

경북의사회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회보

2012 New Year Vol.44

공지사항

제3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제10차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가입 안내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및 복지부 현지조사 업무 안내



경상북도의사회

Gyeongbuk Medical Association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NO.1!



부신피질호르몬제

피디^정

메칠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의 분량 1정 중

메칠프레드니솔론(U.S.P) 4mg

효능 · 효과

- 1.피부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박탈성 피부염,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지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균상식 육종
- 2.알레르기성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 3.교원성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 4.내분비 장애 5.류마티스성 장애
- 6.안과 질환 7.위장관계 질환 8.호흡기계 질환
- 9.혈액 질환 10.악성 종양성 질환 11.부종성 질환 12.신경계 질환 13.기타

보 험 코 드 A21950881

피디^정의 주성분인 **Methylprednisolone**은 기존 Prednisolone보다 **항염효과**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Mineralocorticoid의 작용이 약하므로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낮은 부신피질 호르몬제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4 대륭테크노타운 13차 3층 / TEL:02)2109-3300 • FAX:02)2109-3388



아침 햇살

빛살 한줌
창틈으로 들어와
내안을 환히 밝히네

손바닥으로 좃불처럼 받아들면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바로 오늘이며
그리워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음을
따뜻한 온기로 말해주네

방안 가득 보이지 않던
면지들이 소스라치듯 놀라
무지개로 깨어나
고속도로처럼 빛의 길을 여네

손바닥을 뚫고 지나온
빛 알갱이 몇 개가
회오리처럼 이는
기억들과 갈망을 온전히 지우고
투명한 빛살로 손바닥을 빠져 나가네

언제쯤 스스로를 태워
온 세상에 빛살을 뿌리는
저 해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떨치고 일어나
창을 열면
우리 모두의 無明을
대낮처럼 밝히는 저 빛 무리



김용주 병원장
안동병원 영상의학과



발행인 이석균
 편집인 김중영
 발행일 2012년 1월 17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702-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편집위원장 김재왕
 편집위원 김중영 · 문기혁 · 김종규 · 장태영
 제작처 선진에드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 (053)555-3336 FAX. (053)556-3273

표지 문무왕릉의 일출(경주시 양북면 소재)
 안재현 회원(포항 안재현의원)

- 03 **신년시**
아침 햇살 · 김용주
- 05 **신년사 · 특별기고**
새 희망을 열어가는 의료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 이석균
세상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 정만진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 이상호
- 08 **포토뉴스**
지역 의사회와 연계한 연말 복지시설 방문
- 12 **회무소식**
'사랑의 무료급식'으로 희망나눔 실천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성료
- 14 **회무단신**
- 17 **회원동정**
- 18 **공지사항**
제3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제10차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가입안내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및 복지부 현지조사 업무 안내
- 24 **분회 및 병원소식**
- 29 **지역의사회 탐방**
김천시의사회 / 청송군의사회 / 영양군의사회
- 36 **회원문예**
수 필 _ 종교와 과학 · 이원락
나는 행복한 사진사 · 황인철
지구는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곳이다 · 최성필
시 _ 양동 마을 · 신명준
매니아를 찾아서 _ 암벽등반 입문과 암벽등반의 소개 · 오춘석
아마추어무선(HAM) · 안재현
- 49 **시사칼럼**
법률안 개정안에 우려한다 · 김중영
- 50 **의학 및 건강칼럼**
자궁 근종 색전술 · 양승부
- 53 **의료기관 개원현황 · 편집후기**

주요연중 행사일정

2011. 4. 7	제39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1. 11. 6	경북의사회 추계학술대회
2011. 4. 24	제63차 의협 정기대원총회	2011. 11. 12~13	전국 시도지사협회장협의회
2011. 4. 25	제41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1.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1. 5. ~	2011년도 회원정기신고	2012. 1. 5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
2011. 5. 15	대구 · 경북 권역별 종합학술대회	2012. 1. 17	제44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1. 5. 22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계룡산)	2012. 3. 3	2011년도 전체이사회
2011. 5. 28~29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2012. 3. 6	2011년도 회무감사
2011. 7. 6	제42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2. 3. 17	제61차 정기대원총회
2011. 10. 15~16	전북 · 경북의사회 친선행사	2012. 3. 25	제37대 대한의사회협회장 선거
2011. 10. 31	제43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새 희망을 열어가는 의료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만사형통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아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해보면,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사가 첫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의료계 등 관련 업계의 풍속도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된 한해였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이 발의된 지 23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오랜 숙원을 풀었다’며 이를 반겼지만 법안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료계 여론은 악화됐고, 의사들은 ‘의료기관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선택의원제가 금년 4월 시행 확정을 앞두고 의료계의 찬반이 갈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의협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0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단 간선제로 선출토록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들을 옥죄는 수많은 현안들로 인해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고 어려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사회 또한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중앙 의협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였으며, 또한 나름대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경북적십자사와 사회공헌협약 체결, 한센인 의료봉사, 전북 정읍에 수해성금 전달, 경북행복재단 출범 참여, 경북자원봉사센터와 MOU체결, 사랑의 무료급식,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말연시 봉사활동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 3년동안 우리 경상북도의사회는 주요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회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을 위해 경북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려 힘을 쏟았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구해 진료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직접 지역민들의 건강도 챙기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는 등 작은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더욱 가깝게 다가올 수 있고 지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의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회원님들 또한 이러한 작은 소통의 완성을 위해 우리 의사회와 함께하는 운명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고 의사회 회무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3월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경상북도의사회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엄히고 설친 의료현안의 해결은 물론 회원간 소통과 단합을 위해 진력하고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이 선출된 회장과 집행부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더불어 건설적인 비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임진년 한 해에도 늘 우리 회원님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와 웃음, 그리고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경받는 의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자랑스런 우리 경북 의사회원임을 잊지 마시고 새 희망을 열어가는 의료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 아침에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이석균

세상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에 관한 유명한 일화를 다시한번 소개하며 인사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조가 무학스님이 기거하는 도봉산의 절(回龍寺)로 명명을 찾아가서 며칠 간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는 무학대사에게 군신의 예를 떠나 상호 농담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아무리 찬찬히 뜯어보아도 대사의 얼굴은 돼지 같이 생겼네요.”라고 농담을 던지자 무학대사가 “소승의 눈에는 대왕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조는 “지금 지위를 떠나 농을 하자는데 왕시는 나를 부처님 같다고 하니 이게 어디 농담입니까?”라고 따지듯 물으니 무학대사가 껄껄 웃으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이지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졸지에 돼지가 되어 버린 태조는 수양이 부족함을 깨닫고 무학대사를 더욱 귀히 여겼다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의료계의 현상도 돼지의 눈으로 보느냐 부처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의료계는 희비가 교차하는, 아니 희(喜)보다는 비(悲)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지듯이 임시총회에서는 달걀과 젓갈이 뿌려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행위를 감행한 편에서는 그들을 안중근의사에 비유하고, 다른 편에서는 불한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분명 한 쪽은 돼지 눈이 분명합니다. 양보와 타협은 없고 갈등과 분열과 냉소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의료계,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부처님의 눈을 가졌든 돼지의 눈을 가졌든 의료계를 살리는 의료인의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내부의 갈등은 내부에서 풀어야 하고 외풍에는 하나 된 모습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의협은 물론 우리 의사회도 수장이 바뀌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양심적이고 강력한 의사회가 구축되어 다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비극이 없어지길 기원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것을 긍정과 희망의 새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렵더라도 세상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경상북도의회사회 대의원회 의장 정만진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임진년 찬란한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올 한해도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 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에는 우리나라 국운이 널리 퍼지고 도정의 모든 부문에 눈부신 발전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예로부터 신라 화백제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운 정치제도로, 그 지방자치의 중심에 우뚝 선 경상북도의회 의사당에도 새로운 빛이 비칩니다. 이 빛은 새로운 기운과 동력으로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경북을 만드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도정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서 도민 위주의 희망행정을 펼치도록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도정발전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지역의 구제역 조기근절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등 현안사업이 유난히 많았으며, 특히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지구촌 경기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며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현실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켜야 합니다. 고통을 분담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경제 살리는 일에 용기백배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 복지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명품 경북교육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북도민 여러분!

올 한해도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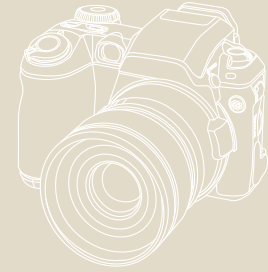
새해 우리 의원 모두는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하여,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가는데 온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상호

지역 의사회와 연계한 연말 복지시설 방문

연말연시를 맞아 본회와 시군의회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희망 나눔을 실천하고 위문공연과 더불어 각종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포항시 의사회

2011. 12. 27
포항모자원



경주시 의사회

2011. 12. 13 대자원
2011. 12. 20 예티센터



Photo News



안동시 의사회
2011. 12. 15
안동애망원



구미시 의사회

2011. 12. 28
구미드림스타트센터



상주시 의사회

2011. 12. 12
노인요양시설

사랑 나누기



경산시 의사회

2012. 1. 3
경산시청





‘사랑의 무료급식’으로 희망나눔 실천

본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사랑의 무료급식’ 행사를 펼쳐, 희망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본회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후원으로 지난 12월 8일(목)은 구미시의사회와 함께 구미원평주차장에서, 12월 12일(월)은 포항시의사회와 함께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랑의 무료급식’ 행사를 펼쳤다.

구미시의사회와 함께한 무료급식행사는 본회 이석균 회장과 류성훈 구미회장, 경북적십자사 구미봉사단원 등이 참여하여 구미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쌀밥과 소고기국으로 한끼 점심을 대접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목도리와 장갑을 전달했다. 또한 포항시의사회와 함께한 무료급식행사에는 이석균 회장, 김광만 부회장과 황석순 포항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경북적십자사 포항봉사단원이 참여하여 포항지역 어르신 150여명에게 따뜻한 점심식사와 더불어 목도리, 장갑을 전달하는 등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위한 희망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에 개최된 무료급식 행사로 이석균 회장이 강조하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와 함께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봉사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달했다.



행사결과

- 구미지역 무료급식(12. 8) 참여자
 - 이석균 경북회장, 류성훈 구미시의사회장, 사무직원, 경북적십자사 구미 봉사단원
- 포항지역 무료급식(12. 12) 참여자
 - 이석균 경북회장, 김광만 경북부회장, 신명준 보협이사
 - 황석순 포항회장 및 사모님, 정숙형 부회장, 서동권 부회장, 송준화 기획이사, 사무직원, 경북적십자사 포항 봉사단원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성료



학술 발표 연제

- 회진근 개 파열을 유발하는 스포츠 활동 및 운동 치료
 - 최창혁 대구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교수
- 두통 환자의 접근 및 치료
 - 임정근 계명대의대 신경과 교수
- 소아의 소화기 및 영양질환과 관련된 성장 장애
 - 최병호 경북의전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의학적 근거중심의 비타민 및 미네랄 요법
 - 정휘수 동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 가장 흔히 접하는 혈액 이상 : 빈혈
 - 박건욱 계명대의대 내과 교수
- 내시경 위암치료의 최신지견
 - 김은영 대구가톨릭의대 내과 교수



최창혁 교수



임정근 교수



최병호 교수



정휘수 교수



박건욱 교수



김은영 교수

본회는 지난 11월 6일(일) 오후 3시부터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10층 대강당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나날이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최신 의학지견의 활발한 교류와 회원보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는 이동석 학술이사의 진행으로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는 학술연제를 선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최신 의학 지식과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도록 했다.

이날 본회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참석하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진료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으며, 이어 주요회무보고를 통해 2012년도 수가 협상 결과와 더불어 선택의원제, 의협회장 간선제 판결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한편 회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학술대회 첫 번째 강의로 대구가톨릭의대 정형외과 최창혁 교수로부터 ‘회진근 개 파열을 유발하는 스포츠 활동 및 운동 치료’ 강의를 시작으로 총 6편의 학술연제로 구성되어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회원에게는 연수평점 6점이 주어지는 등 경상북도의사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의협 임총서 의협회장 선거 방법 결정



2012년 3월 25일 치러지는 제 37대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는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해야만 선거인단

배정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4시 동아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243명 재적대의원 가운데 162명이 참석한 이날 임총에서는 선거권과 회비를 연계기로 하고, 입회비 및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 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회원신고 2년 미만인 신규회원은 입회비 및 신고 이후의 회비를 모두 납부해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인단은 243명의 중앙대의원과 의협 신고회원 30명당 1명 꼴로 직선에 의해 선출한 선거인단을 합해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분회에 소속돼 있는 전공의는 교수·봉직의와 동등하게 신고회원 30명당 1인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 규모는 243명의 의협 대의원과 의협 신고회원 8만 4667명 가운데 최근 2년 회비 완납 회원 4만 1690

명(12월 8일 현재)을 기준으로 직접선거로 선출한 선거인단(1390명)을 합해 1632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선거인단 선출방식은 선거구별로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거인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선거구는 회원 수 100인 이상의 지역(시군구 및 특별분회)과 군진 의사회를 원칙으로 하되, 100인 미만의 지역은 인근지역과 연계해 선거구를 확정하기로 했다. 차기회장 선출은 현 회장 임기 만료일 직전 3월 넷째 일요일(2012년 3월 25일) 전체 선거인단이 한 자리에 모여 기표소 투표방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첫 투표에서 과반수 이하일 때는 상위 1, 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치르는 것으로 정리했다.

세부적인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차기 의협 회장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공제회 사무국의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의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준비의 무기한 연기의 건은 추무진 대의원(경기) 외 63명 대의원들이 제안한 안을 놓고 표결 끝에 104명 찬성(반대 69명)으로 법인설립 준비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 본회에서는 이원기·변영우·정만진·이석균·정능수·김재왕·김광만 대의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기사 및 사진 제공 : 대한의사협회〉

의협 및 본회 선거관리위원 위촉

본회 회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경상북도외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구성과 더불어 2012년 3월에 실시되는 본회 회장, 대의원회 의장의 선출과 제37대 의협회장 선거를 준비하고자 본회 선거관리위원을 지난 1월 5일(목) 위촉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본회 회장 추천 3인과 대의원 의장 추천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구분	성명	지역	근무처
위원장	유동명	안동	유동명정형외과의원장
위원	손병욱	경산	손병욱내과의원장
"	김영권	김천	김영권정형외과의원장
"	조종래	구미	한일산부인과의원장
"	이해철	포항	오천제통신경외과의원장
"	이동욱	경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교수
간사	박재영	대구	경상북도외사회 사무처장

본회,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금장 포장 수상



본회는 지난 2011년 10월 27일 숭고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여 적십자회원으로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상했다.

본회와 경북적십자사는 지난 2011년 6월 14일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봉사활동과 의료지원, 건전한 기부문화운동 등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일정

대한의사협회 제37대 회장선거와 선거인단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 : 최중욱 위원장 외 8명

■ 의협회장 선거일정

- 회장선거공고 : 2012. 2. 3(금)
- 회원등록명부 발송 : 2012. 2. 6(월)

• 선거인명부(1차 투표권자) 열람 : 2012. 2. 10(금) ~ 2. 25(토)

- 최근 2년간(2009, 2010년) 회비납부기간

- 선거인명부(1차 투표권자) 확정 공고 : 2012. 2. 27(월)
- 선거인단 입후보자 등록 : 2012. 2. 27(월) ~ 2. 28(화)
- 선거인명부(1차 투표권자) 발송 : 2012. 2. 28(화)
- 선거인단 입후보자 기호추첨 : 2012. 2. 29(수)
- 선거인단 선거 : 2012. 2. 29(수) ~ 3. 8(목)

-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 2012. 3. 8(목) ~ 3. 10(토) 16시
- 회장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 2012. 3. 8(목) ~ 3. 25(일)
- 선거인단명부(2차 투표권자) 확정공고 : 2012. 3. 9(금)
-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공고 : 2012. 3. 10(토)
- 선거인단명부(2차 투표권자) 발송 : 2012. 3. 12(월)
- 회장선거 후보자 기호추첨 : 2012. 3. 12(월) 10시
- 선거인단 선거자료 및 안내문 발송 : 2012. 3. 15(목)
- 선거인단 투표 및 개표 : 2012. 3. 25(일) 10시
- 당선인공고 : 2012. 3. 25(일)

본회 회장 및 의장 선거 일정

본회 회칙 제9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2012년 3월 17일(토) 개최되는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의장을 선출(간선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 본회 선거 개요

- 1) 선거명 : 본회 제42대 회장 및 제15대 의장 선거
- 2) 선거사유 : 회장 및 의장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선거

■ 본회 선거일정

- 선거공고 : 2012. 2. 25(토)
- 후보자등록기간 : 2012. 2. 29(수) ~ 3. 2(금) 17:00까지
- 후보자등록서류 : 대의원 20명 이상 추천
- 기호추첨 : 2012. 3. 2(금) 18:00 / 본회 사무처
- 후보공고 : 2012. 3. 3(토) / 본회 홈페이지 · 공문
- 선거운동 : 2012. 3. 2(금) ~ 3. 16(금) / 15일간
- 등록후보자안내 : 2012. 3. 7(수) / 선거 10일전 대의원
- 소견발표 : 2012. 3. 17(토) 총회석상 / 연장자순
- 투표및개표 : 2012. 3. 17(토) 총회석상 / 선거관리위원
- 당선인공고 : 2012. 3. 17(토) 총회석상 / 선거관리위원장



2011년도 의사회비 납부 및 신용카드결제

■ 의협회비 면제

- 1) 만70세이상 회원(1941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 단, 경상북도 의사회비는 '가회원' 250,000원, '나회원' 125,000원 납부
 - 2)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 3)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 4)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 5)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면제 요청회원
- ※ 회비면제회원 신청 : 해당회원의 증빙자료 첨부 신청

■ 회비 감면 회원

- 개원회원(가회원) 중 '나'회원회비 적용대상 : 471,000원 정수
- 만65세이상 회원 : 1941년 5월 1일 ~ 1946년 4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기준

■ 신용카드결제

- 본회 홈페이지(<http://www.igbma.or.kr>) 접속 → 회비납부 (화면 좌측 박스) 클릭 → 해당금액 결제

■ 입금계좌

- 농협 301-0012-0507-61 경북의사회

회비내역	가회원		나회원	다회원	라회원	휴직회원	비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대한의사협회비	300,000	221,000	221,000	125,000	96,000	125,000	연회비 · 구독료 · 연구소 회비 · 학술대회분담금
경북도의사회비	250,000	250,000	125,000	75,000	-	-	
계	550,000	471,000	346,000	200,000	96,000	125,000	

전국 시도지사협회 회의 개최



최근 의료현 안 논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협회 협의회가 본회 주관으로 지난 2011년 11월 12일(토)부

터 13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각지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현안인 의협 선거관리규정과 선택의원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이날 이석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천년고도의 경주에서 시도지사협회장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참석해주신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현안 개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으며, 박인태 협의회장은 인사를 통해 “준비해주신 경북의사협회에 감사드리며, 어려움에 처한 의료계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튿날에는 동리·목월 문학관을 찾아 김동리의 작품세계와 박목월의 시세계에 대해 감상하는 한편 불국사를 관람하는 코스로 이루어졌다.

본회 및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 간담회 개최



본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간 상견례 및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2011년 11월 3일

(목) 오후 7시 30분 아트리움에서 개최됐다.

본회 이석균 회장은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양 단체가 협력해서 국민건강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으며, 이어 박경순 대구지역본부장은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인사말을 통해 “오늘 만남을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가 됨은 물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하자.”고 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마련한 자료를 통해 2011년 건강보험 재정 및 보험급여비 지급현황, 2012년도 수가협상에서 병협을 제외한 6개 의약단체와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 2011년 하반기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타 주요 추진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 개최



지난 1월 5일 (목) 오후 7시 30분 호텔제이스 파티홀에서 2012년도 시군의사회장 및 본회 임원 연석회

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본회 고문을 비롯한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겸하여 개최되었으며,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일영 기획이사로부터 신년합동인사와 이석균 회장, 대의원회 정만진 의장의 신년사, 회무보고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주요회무보고에서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지역 의사회와 연계한 불우시설 방문, 사랑의 무료급식 전개, 시군 의사회 신임회장 선출, 제3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2012년도 의료기관 수가결정, 2011년 귀속 의료비 자료제출, 의사회 보 신년호 발간 등에 대해 각 부서별 소관이사로부터 보고가 있었다.

토의사항으로는 제37대 의협회장 간선제 선거일정과 선거인단 선거, 본회 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선거, 2011년도 의사회비 납부 독려와 관련하여 시군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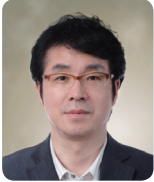
시군 의사회 신임회장 선출



안동시 의사회 김석곤 신임회장(62생, 계명대의대)은 이사, 기획이사 등을 두루 거쳐 이번 정기총회(2012. 1. 12)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되어 집행부를 구성하고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으며, 인선학문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영주시 의사회 황성진 신임회장(60생, 연세원주의대)은 법제이사, 부회장을 거쳐 이번에 신임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영주시 영주동에 다인산부인과의를 개원하고 있으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년이다.



의성군 의사회 권순호 신임회장(62생, 영남의대)은 총무이사를 거쳐 신임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의성군 안계면 용기3리에 삼성연합의원을 개원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챙겨왔다.



예천군 의사회 김홍중 신임회장(57생, 가톨릭의대)은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에서 예천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임기는 각각 1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임헌술 학장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취임**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임헌술 교수가 지난 2009년 10월 대한예방의학회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임헌술 이사장은 2011년 9월 21일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이사, 11월 2일 의치의학교육입문검시험 의회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지난 9월 초부터 캠프 캐럴 건강영향조사 단장을 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 교수는 활발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후',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 '미국 인명정보기관' 등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된 바 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최재덕 교수
대한비뇨기과학회서 '임상부문' 최우수상**



최재덕 교수는 지난 2011년 11월 16일~18일까지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63차 대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외 논문 '임상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재덕 교수는 'Renal Damage Caused by Warm Ischaemia During Laparoscopic and Robot-Assisted Partial Nephrectomy: An Assessment Using 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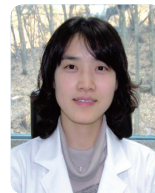
99m-DTPA Glomerular Filtration Rate'란 제목으로 BJU international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최 교수는 현재 비뇨기종양 중 전립선암, 신장암 및 방광암을 전문진료분야로 하고 있으며,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전립선학회 부총무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포항성모병원 안길영 과장
대한관절경학회 우수논문상**



포항성모병원 관절경센터 안길영 과장이 제23차 대한관절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난 1년간의 발표논문 중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안 과장은 대한관절경학회 학술지 2011년 2월호에 발표한 논문 '자가 슬괵건과 자가 슬개골건굴을 이용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전향적 비교가 관절경학 발전에 기여하고 내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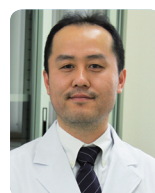
**구미차병원 최희정 교수
대한소아과학회, 한국심장재단 우수논문상**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최희정 교수가 2011년 제61차 대한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심장재단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최교수가 수상한 우수논문상은 한국심장재단에서 대한소아과학회 학술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s'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심장 관련 우수 논문을 엄선하여 수여하는 학술상으로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최희정 교수는 '소아 선천성 심장병 개심술 후 발생한 조기 부정맥'을 주제로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게 개심술 후 발생하는 부정맥의 빈도와 종류, 위험인자를 조사하여, 이를 주의 깊은 감시와 치료로 치명적인 결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여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되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정태석 교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으로 선임**



대한축구협회가 신임 대표팀 사령탑 선임에 앞두고 기술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재활의학과 정태석 교수가 신임기술위원으로 선임됐다.

정태석 교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동시에 스포츠의학 분과전문의로 한양대 의대를 졸업, 을지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으며, 안동병원 재활의학과과장 역임, 최근 3년간 영국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에서 스포츠과학(축구생리학)을 전공했다. 또한 2010 FIFA WC 한국대표팀을 비롯, K리그 프로팀의 축구과학 컨설팅을 담당했으며 축구전문 잡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제3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경상북도의사회는 회원들의 의학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학술상 수상자와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한 봉사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상개요

- (1) 상 명 :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각 1명)
- (2) 시상내용 : 본상 상패 및 부상(각 금 1냥)
- (3) 후 원 : (주)동원약품
- (4) 시상시기 : 2012년 3월 17일,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응모자격

- (1) 학술상
 -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
 -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동일한 논문으로 타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과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수상자는 제외)
 - 1저자 혹은 교신저자
- (2) 봉사상(회원 및 단체)
 -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 또는 의사단체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진료, 교육, 문화, 육영, 체육, 예술, 지역 사회 개발, 사회복지사업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펴 지역주민 또는 관련기관, 단체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
 - 시군의사회 추천을 받은 자

제출서류

- (1) 학술상
 - 신청서 및 이력서 각 1부
 - 논문목록표 1부(논문은 우선 순위로 기재)
 - 논문개요 및 학술적인 의의 및 의학발전의 공헌도에 대한 요약 1부
 - 논문의 별책 각 1권

(2) 봉사상(회원 및 단체)

- 신청서 및 이력서 각 1부
- 봉사개요 및 활동내역 1부
(각종사진 및 신문기사 등 활동사항)

제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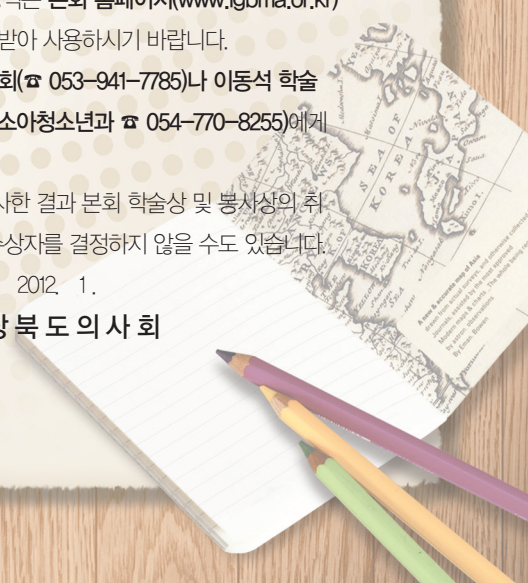
- (1) 제출마감 : 2012년 2월 24일(금)
- (2) 제출처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2동 404-4
경상북도의사회
- (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
(제출서류 마감은 2월 24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기타사항

- (1)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심사는 경상북도의사회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함.
-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자에게는 본회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 (3) 제출서류(신청서 등)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www.igbma.or.kr)**의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회(☎ 053-941-7785)**나 **이동석 학술이사 (동국대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 ☎ 054-770-8255)**에게 문의 바랍니다.
- (5) 응모자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본회 학술상 및 봉사상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2. 1.

경상북도의사회





제10차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가입개시 2011. 11. 1 ~ (수시가입 가능)

- **가입효력**
 - 은행계좌로 해당 공제료가 입금된 익일 0시부터 1년간 (단,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제로 입금내역이 일치해야 함)
 - 가입대상 : 30명상 미만의 의원급 소속 개인의 및 봉직의(개인가입)
- ※ 병원급 의료기관 가입은 개별문의 바랍니다.

가입절차

실제 진료내역에 해당하는 진료계열(Code), 보상한도액, 면책금 선택 (특별약관이 필요한 경우 담보내용 확인 후 가입여부 선택)

가입신청서 기재 및 서명(납부할 공제료를 안내 받음)

가입신청서 송부(FAX 또는 우편)

지정된 은행계좌에 공제로 입금(가입회원명 및 면허번호 기재)

납입방법

- **일시납이 원칙이며, 총 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2회분납 (2%할증), 총 공제료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분납(3%할증) 선택가능.**
- **분납시 공제로 납입방법**
 - 2회분납 : 1회차(60%), 2회차(5개월후 40%)
 - 4회분납 : 1회차(35%), 2회차(2개월후 25%), 3회차(5개월후 20%), 4회차(8개월후 20%)

공제로 납부

- **예금주** : 사대한의사협회(공제회)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3-01-0220-198
- **은행입금시 반드시 가입회원명(면허번호) 기재**
 - ※ 이미 가입중인 회원은 안내문을 보시고 만기(갱신)일에 참조하여 가입
- **가입문의처**
 - 대구 · 경북 주재사무소 Tel 053-941-7102
 - 공제회 본부 Tel 02-794-2480, 6587, 2474 (ARS 9)

의료배상공제란?

- **공제회가 사업을 총괄운영**
 - 공제회가 공제계약 및 사건처리/심사/보상의 주체
 - 안정적 위험분산기능 확보를 위해 손해보험사(삼성화재)에 재공제 가입
- **의료배상공제의 특징**
 - 진료계열별 6개 Group으로 가입체계를 분류
 - 보상한도액의 현실화(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등)
- **의료사고분쟁의 현실적 해결책 제시**
 - 타손해보험사와 구별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합의지원 (서울본부 외 주요 지역별로 공제회 주재사무소 설치운영)
 - 회원 권익보호, 합리적인 피해보상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현(민사 소송 대행 기능)

의료배상공제 상품내용

- **보통약관(기본담보)**
 - **의료과실**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 (민사소송 대행 가능)
- **특별약관(선택담보)**
 - **경호비용** :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접거, 난동 및 부당한 보상강요에 대응하여 사건 처리 수습,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경호비용을 보상(경호원 출동 서비스)
 -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 수진자의 사망(노사 포함)시 수진자 측이 의료분쟁을 제기한 경우 관습적으로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또는 형사합의금을 보상
 - **벌금** :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담하는 벌금을 보상
 - **형사방어비용** : 의료사고로 인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형사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을 보상
 - **초빙의 및 마취의** : 기명 피공제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명피공제자의 수진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기명피공제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초빙의/마취의)의 의료행위 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및 복지부 현지조사 업무 안내

일선의료기관에서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및 복지부의 현지조사업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환수를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및 복지부 현지조사업무 등에 대해 안내하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비교

구 분	현지확인	현지조사
주체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보법에 의거한 임의적 요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업무등)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82조(신고 등) 제83조(자료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보법에 근거한 행정조치 건보법 제84조(보고와 검사), 건보법 제85조(업무정지) 및 제85조의 2(과징금) 및 시행령 제61(과징금 등 행정처분기준), 건보법 제94조(벌칙), 제99조(과태료)
목 적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요양급여사항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조사기관 및 조사자	건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원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직원)
조사대상기관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 조회 및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등을 통해 인지한 부당건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조사: 자율시정통보 미시정기관,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부당예측지수에 의해 선정된 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건보공단·심평원·대외기관·보장기관에서 의뢰된 기관, 민원제보기관 기획조사: 건강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분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분야 긴급조사가 필요한 기관 이행실태 조사가 필요한 기관
조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조공문등을 제시함 (임의적 요청) 해당 건에 대하여 요구사유와 근거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며 동일유형 부당 건으로 5건 이상 확인된 기관에 대하여 해당 부당유형에 한정하여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하여 최대 6개월 진료분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서면으로 요청 ※ 동일유형 부당 건으로 5건 미만 확인된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환수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된 자료가 미비한 경우 2차 자료 제출 요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 통지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자료제출 명령서등을 제시함
조사기간	1~2일	의원급 1주일 이내, 필요시 연장가능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환수 : 월평균 부당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현지조사 의뢰 월평균(연속된 기간) 부당건수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해 부당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 ⇒ 공단의 조사의뢰를 받았다고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허위 청구금액 750만원 또는 허위 청구비율 10%이상인 기관등) 공표 (거짓 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등)



● ● ● 건보공단 현지확인 및 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한 Q&A

■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해도 되는지?

- 건보공단의“현지확인”은 보건복지부의“현지조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로 반드시 조사를 받는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현지확인을 거부할 수 있음.
⇒ 건보공단에서는 현지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협조요청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뿐 아니라 거부할시 현지조사의뢰하겠다는 협박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됨.

2003년 법제처의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범위 유권해석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권한이 없고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함 (건보공단은 현지조사권한이 없음)

■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 요양급여기준등을 숙지하여 소신진료하고 진료한 내용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진료기록부등 관련 서류를 법적 기준에 맞게 보존해야 함.

서 류 명	보관연한	서 류 명	보관연한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 영수증 부분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5년	수술기록	10년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5년	검사소견기록	5년
약제 · 치료재료의 구입 대장	5년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5년
환자명부	5년	간호기록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진단서 등 부분	3년
처방전	2년 / 3년		

■ 건보공단 현지확인 및 복지부 현지조사 후 사실확인서에 서명은 반드시 해야하는지?

- 확인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명하지 않아도 되며 환수예정 통보가 된 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음.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후 조사자의 협박이나 회유가 있더라도 부당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면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말아야함. 서명을 한 경우 향후 소송제기시 불리하게 적용됨

■ 현지확인 또는 현지조사시 서류제출 명령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 기준은 없으나 공단이 2회이상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시 복지부 현지조사 의의가능 함. 복지부 현지조사는 건보법 제61조 제1항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거 업무정지 1년과 제95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에 대한 질문이나 대처요령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의협 보험국 (02) 794-2474(521, 520)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Notice

공지사항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 및 각종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합니다.
모든 공문 및 안내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http://www.igbma.or.kr>)의
의사회소식 → 온라인 공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가입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액제, 정장생균제,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변경 재안내

- 10월 1일부터 개정된 약제(내용액제, 정장생균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에 대해 수차례 안내하고 회원들의 삭감 피해를 우려하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도 팝업창 등을 이용한 홍보를 협조요청한 바 있음에도, 개정된 급여기준을 인지하지 못하여 잘못 청구되는 사례(예: 환자 전액본인부담을 급여로 청구)가 빈번히 발생함
- 특히, 동 약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약제들로 향후 심사조정 및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되는 바,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

노인복지관 불법물리치료행위에 대한 의법조치 결과 안내

-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의 불법 물리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지역 노인의 의료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해당 관할 보건소에 시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범위와 관련하여 주변 의료기관에서 단순히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안내함.
- 앞으로도 의협은 증가일로에 있는 지역 노인인구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의 불법 물리치료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간소화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0호, 2011. 9. 30)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중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급여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안내
- 즉,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해서 2011년 9월 30일부터 의사의 검수확인을 폐지(국민건강보험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하되 의료기관에서 검수확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제외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검수확인서를 반드시 발급

교통사고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관리 철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자배법') 제13조에 의거,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한 중점관리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점검실시 안내장을 일선 의료기관에 발송한 바, 의협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배법상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할 예정
- 이에 우선적으로 관련법규를 참조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출·외박 기록지를 철저히 관리(교통사고환자가 무단 외출 시 기록지에는 무단외출이라 기재하여야 함)하는 등 안내

군의원 및 의료종사자 민간병원 불법진료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이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도 할 수 없다),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0282호, 2007. 9. 20)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의료사고 발생시 법의 보호 곤란 :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그 직무가 정치적, 반사회적 또는 영리적 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 ※ 군의원 민간병원 불법진료의 문제점

- 군의관 개인의 불이익 : 불법 진료 군의관에 대해 군법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
- 군에 대한 신뢰도 저하 : 현재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효과 발생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 주의 촉구 및 단속

- 보건복지부는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및 한의원 등에서 소위 '병원코디네이터' (상담실장)에 의한 진단·검사·판독·진료 계획서 작성 및 시술 방법 결정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제보(KBS <소비자고발> 2011. 8. 26 방송)와 관련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고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
-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나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것임(대법원 2010.03.25. 선고 2008도 590 판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원에서 일회용으로 허가된 주사기를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있다는 제보(KBS <소비자고발> 2011. 9. 2)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에 따라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일회용 주사기는 감염 위험으로 재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옴에 따라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홍보

"프로포폴" 관리실태 전국 합동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 95개소(도매상 17, 병원 30, 의원 48)를 대상으로 프로포폴 적정 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통한 결과 △저장 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 △마약류 관리대상 일부 미기재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 18건(도매상 2, 병원 1, 의원 15)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경고, 취급금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도를 통해 향후에도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식약청 확인결과 2012년도 점검일정은 미정), 프로포폴 관리에 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 노력과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의협에서는 기 안내해 드린 바 있었던 프로포폴의 항정신성의약품 지정과 관련된 참고사항을 안내함.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중단 권고

-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세정제)'의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 실험 중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언론설명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한 바 있음에 따라 안내함.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행

- 현행 의료법 제37조제2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건강진단)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의료법 제92조(과태료)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고시

- 개정이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도입, 영유아검진 월령(66개월~71개월)

월) 추가 및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등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시행
- '공휴일 검진기관 정의' 신설 : 현행 '요양급여 비용고시'에 따라 공휴일 진료 가산율 30% 적용
- 영유아검진 월령 확대 : 월령(66~71개월)을 추가하고, 영유아검진 진찰료에 미적용된 영유아 난이도 가산점 적용
- 정보활용동의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12. 1. 1(다만, 별표 4의 7차 영유아 건강검진(6개월~7개월)은 2012. 4. 1부터 시행 하되, 2012. 1. 1부터 3월 31일에 해당되는 월령은 소급 적용할 수 있음)

2012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안내

-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시 백신비의 행위로 일부(1만원/회) 지원 예정(2012.1.1.~)
- 지원백신(10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Tdap(신규추가, 2012.1.1.~)
- 접종 시행비용 : 의원급 기준 단일수가로 접종 1회당 15,000원(지원비용 1만원, 본인 부담금 5천원)
- '12년 사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1999. 1. 1. 이후 출생아)
- 필수예방접종 지원비용 확대 : 백신비 및 접종 시행비용(회당 1만원)지원
-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 추가 : 연 2회 자율점검 및 연 1회 이상 방문점검 실시
- 비용상환 기준변경 : 최소접종 연령보다 이른접종 상환불가(2012년 하반기 예정)
- 위탁의료기관 보수교육 추가 : 매년 보수교육(1~2차시, 60분) 추가 이수 필요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등 서식 일부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KB국민은행)을 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로 수정(2011. 12. 15부터 시행)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아프리카 의료봉사 활동



포항시의사회 황석순 회장과 고창대(고창대유외과의원) 회원 선린병원 홍성미 간호처장, 에스포항병원 최준화 간호과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지난 201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소아비나 포항메디컬센터에서 하루 평균 200여명의 환자들을 돌봤다.

포항메디컬센터는 포항시와 평화의료재단이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으로 각각 3만5천달러를 들여 건립한 병원이다. 이곳에는 치료를 받으려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뤄 발디딜 틈이 없었으며, 봉사단은 하루 10시간 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제2회 포항보건단체와 함께하는 독도사랑 음악회 개최



포항지역 5개 보건단체 연합회(회장 황석순)와 재단법인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회장 이병석)가 함께 펼치는 '제2회 보건단체와 함께하는 독도사랑 음악회'가 지난

2011년 11월 13일(일) 오후 7시부터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독도침탈을 위한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하고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삶이 담긴 독도를 지켜낸 서른 세분, 독도의용수비대의 국토수호 정신계승과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과 박승호 포항시장,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많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독도사랑음악회 사랑하기콘서트는 김은상(치과의원)의 사회로 포항시치과의사회 그룹사운드의 공연과 간호사회 난타공연, 한의사회 한울림남성중창단, 약사회 파모니합창단, 의사회 중창단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2012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201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의료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신년 대화의 자리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3일(화) 오후 7시 30분, 목화예식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황석순 포항회장과 이석균 회장, 한나라당 이병석 국회의원 등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황석순 회장의 신년사와 내빈소개가 있는 후, 이석균 경북회장의 격려사, 한나라당 이병석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류형균 회원의 아들 류동훈 군의 바이올린 연주와 그동안 틈틈이 갈고 닦은 의사회 중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이원기 의협부회장의 '용호택일' 사자성어 설명을 한후 참석한 회원중 최고 연장자인 추성수(추이비인후과의원) 회원과 신은식(신정형외과의원) 회원의 덕담과 건배제의, 그리고 지난해 새로 포항에서 개원한 회원과 새로 오신 봉직회원의 자기 소개가 있은 후 회원들간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경주시의사회

제2회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경주시의사회(회장 이봉구)는 2011 경주YMCA 지구촌 축제한마당이 황성공원에서 지난 2011년 10월 23일(일) 오후 2시 개최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경주YMCA 주최로 2000년 10월부터 시작되어 올해 12회째를 맞이하여 더욱 풍성한 행사로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경주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하여 축하공연, 각 국가별 민속공연, 장기자랑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경주시의사회서는 매년 보건소, 약사회, 한의사회와 더불어 무료진료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서보완 회원(경주중앙병원 신경과)과 조성범(한빛아동병원)·정유선(웅인내과의원) 회원이 참여했다.

회원 및 가족 추계야유회 개최



경주시의사회 추계야유회가 지난 2011년 10월 30일(일), 경북 울진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오전 8시 황성공원 시계탑에서 출발하여 포항을 거쳐 가을단풍으로 곱게 물든 불영계곡을 지나 불영사에 도착하여 불영사식당에서 산채비빔밥과 토토리묵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불영사, 죽변항, 성류굴 등을 관람한 후, 영덕 강구항 쪽으로 내려와 바닷가에 위치한 동해안Hits에서 친목행사를 가졌다. 이번 야유회는 신현국·강행복 원로회원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가을을 만끽했다.

제7차 확대이사회 개최



2011년도 제7차 확대이사회가 지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7시, 감포별미Hits집에서 열렸다. 이봉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 18명이 참석한 확대이사회에서 이봉구 회장은 "2011년도 마지막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토의안에 대해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으며, 이홍우 기획이사 간의 간략한 회무보고 후 2011년도 회비납부,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 송년의 밤, 의료현안-뷰티산업법안(이국형 정책이사), 의료분쟁조정법(임승근 법제이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11년 송년의 밤 성료

2011 신묘년을 보내고 2012 임진년을 맞이



하는 "2011년 경주시의사회 송년의 밤"이 12월 27일(화) 오후 7시, 경주 힐튼호텔 체리룸에서 회원 및 가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의사회에서 진행한 주요사업들 사진으로 감상하며, 테너 이현영 교수(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독창(석굴암 등 3곡)을 듣는 등 박수와 환호로 시작되어 이봉구 회장의 인사와 변영우 고문과 유환무·정필현 회원의 건배제의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다. 임승근 회원의 사회로 회원 및 가족의 장기자랑과 더불어 빙고게임과 행운권 추첨으로 여러 회원과 가족에게 상품이 주어졌으며, 행운권 대상에는 이경섭 동국대 경주병원장이 영광의 주인이 됐다.

안동시의사회

제6회 자선음악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광인) MD양상블(단장 최현욱)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안동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6회 안동시의사회 자선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자선음악회는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권영세 안동시장, 안동시의사회 회원과 가족, 안동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 가운데 제6회 안동시의사회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자선음악회 1부는 안동시의사회 MD ensemble의 '오늘같은밤', '장미의 미소' 등 대중가요를 오프닝송으로 시작하여 2부는 MD Group Sound로 'Hotel

California'의 3곡으로 이어졌으며, 특별출연한 바리톤 박창석은 아일랜드 민요인 'Oh Danny boy'와 한계령 등을 독창하였으며, 3부 마지막 공연에서는 MD ensemble의 '애니메이션 메들리', '슈퍼맨', '친구여'를 불러 모든 관중들과 함께 한층 고조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큰 박수를 받는 등 자선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년에도 다시 만날것을 기약했다.

구미시의사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류성훈)는 지난 2011년 10월 30일(일)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가 충북 영동 천태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회원 및 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느해 보다 더욱 뜻 깊은 등반대회를 가졌으며, 하산 후 관내 식당에서 뒤풀이 시간을 가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임산부의 날 기념 아이사랑 음악회



구미시의사회와 구미시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하여 지난 2011년 10월 8일(토)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임산부 및 가족, 예비부부,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구미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아이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

제3회 모유수유 사진공모전 우수작품 시상식을 겸한 음악회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임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

극적인 임신 출산 동기부여로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구미시의사회가 주관하고 아이낳기좋은세상 구미시운동본부가 후원했다.

류성훈 회장은 이번음악회를 통해 행복한 가족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제고 및 저출산 고령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예술과 문화, 경제가 있는 아름다운 녹색문화도시 구미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2011년도 송년회 개최



지난 2011년 12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금오산맥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류성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얼마남지 않은 2011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특히 회원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앞서가는 구미시의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였다. 또한 건배제를 통해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고, 회원모두 한해동안 못다한 회포를 푸는 뜻깊은 송년회가 되었다.

구미드림스타트 방문, 이웃사랑 실천

지난 2011년 12월 28일(수) 구미드림스타트 센터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며 영양제를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식에서 류은주 팀장의 센터소개와 사업성과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의 간단한 설명에 이어, 해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오는 구미시의사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늘 지속적인 관심 또한 가져달라고 했다.

경산시의사회

2011년도 송년의 밤 개최

경산시의사회(회장 박일영)는 12월20일 오후7시30분 대구그랜드호텔에서 회원 및 가족, 내빈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송년회밤을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밤 행사에는 경상북도의사회 이석균 회장, 서용덕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희태 지사장, 박일영 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가족 등이 참석하여 박일영 회장의 인사말과 이석균 경북회장, 서용덕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희태 지사장의 축사가 있는 후 유공회원 대한 표창이 있었고 또한 이 자리에서 경산시의사회는 서용덕 보건소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뽀리댄스 시범과 마술쇼 등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경품추첨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웃사랑 나눔의 성금 기탁

지난 1월 3일(화) 경산시청을 방문, 이웃사랑 나눔의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경산시의사회는 140여명의 회원들이 매년 관내 어려운 시설을 방문하여 물품 및 성금 전달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개원 20주년 추계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병원장 이경섭)은 지난 2011년 10월 20일(목) 오후 7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개원 20주년 추계 개원의 연수강좌가 병원 1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골다공증”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연수강좌

에서는 △골다공증의 역학 및 사회적 측면 (이관 산업의학과 교수) △골다공증의 진단 (강석 정형외과 교수) △폐경 후 골다공증의 치료(양희생 산부인과 교수) △노인성 골다공증의 치료(이영실 내분비내과 교수) 등 각 과별로 여러측면에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의료관광 및 힐링센터 착공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이사장 정련스님과 김희옥 총장, 김영중 경주캠퍼스 총장, 최양식 경주시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양한방 의료관광 및 힐링센터’ 착공식을 지난 2011년 12월 20일 가졌다. ‘국제 양한방 의료관광 및 힐링센터’는 동국대 경주병원 안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12년 12월 말까지 건립될 예정이며 내국인은 물론 경주를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국내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관계치유센터를 개설해 이혼과 자살, 청소년 범죄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QI경진대회 3년째 최우수상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원장 신현수)은 지난 12월 13일(화) 서울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QI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안동의료원은 내시경 검사 환자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해 내시경실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 관리 업무를 표준화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신현수 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의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만족과 업무효율성을 향상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6-시그마 성과대회 금상 수상

2011년 지역거점공공병원 6-시그마 추진성과 보고대회



지난 2011년 11월 10(목) 오후 1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된 '지역거점공공병원 6-시그마 성과대회'에서 2011년도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6-시그마 성과대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주최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정종훈)의 주관으로 공공의료의 경영혁신과 업무개선 활동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안동의료원은 '창구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이라는 주제로 내·외부 고객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One-stop 카드 결제 시스템 및 QR 진찰권 카드 도입과 서비스 매뉴얼 제작 및 최적화된 친절교육 실시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을 꾀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금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안동병원

응급의료전진대회 장관 표창



안동병원(이사장 강보영, 병원장 김용주)은 최근 서울역 프레지던트홀에서 열린 '제7회 전국응급의료전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 해 4만여 명에 이르는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안동병원은 2011년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강보영 이사장은 “응급환자의 생존율과 장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1998년부터 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고 2000년에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충했다”고 밝혔다.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오천환 병원장 취임식 및 시무식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오천환 병원장이 제17대 병원장에 연임됐다. 순천향대학병원은 지난 1월 2일 취임식 및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012년을 맞이했다.

오천환 병원장은 충남의대(이비인후과)를 졸업하고 순천향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 교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원장을 거쳐 지난 2007년 순천향대 구미병원장으로 취임하여 15대, 16대를 병원장을 역임했다. 그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의료진 보강, PET-CT 등 최첨단 장비 도입, 각종 시설을 확충하여 환자우선,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드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 위원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 역임, 현재 대한두경부외과학회 상임이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의료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대외적으로도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날 부원장에는 김준동 교수(소아청소년과)와 진료부장에 배상철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수련부장에 양승부(영상의학과) 교수도 각각 임명됐다.

“선진의료 배우러 왔어요” 파라과이 보건의료관리자 방문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병원장 오천환)은 지난 2011년 12월 5일(월) 오후3시, 파라과이 보건의료관리자들이 한국의 성공적인 보건



정책 및 선진의료시스템을 전수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동 주선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는 파라과이 주요 병원과 국립의료기관의 의료진 및 정책 요원 15여명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구미시와 순천향병원 의료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병원의 수술실, 신생아중환자실, PET-CT검사실, 병실, 심혈관센터, 종합건강증진센터 등 주요시설을 둘러봤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32명 홍보대사들이 나섰다



지난 2011년 11월 30일(수) 오후6시, 병원의 지역 보건의료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지역주민의 여론 청취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홍보대사들을 위한 정기 모임을 개최했다. 베스트웨스턴구미호텔에서 열린 행사는 병원동영상 상영, 병원특성화센터 및 전문진료분야를 소개하며 홍보대사들의 활동사항과 병원 발전을 제안하는 간담회로 이어졌다.

병원은 지역 주민과 유대 강화를 위해 5월 3일, 32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경북 중서부권 최고의 환자중심 열린 거점병원이 되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존경과 덕망있는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병원을 대표하여 병원관련 소식과 올바른 건강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병원에 전달해 병원 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을 지향하고 있다.

제7차 뇌신경센터 심포지엄



지난 2011년 11월 25일(금) 오후 4시, 병원 향설교육관에서 제7차 뇌신경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재훈 교수의 진료실에서 간과되기 쉬운 '고중성지방혈증'에 관한 최신지견과 국립중앙보훈병원 양영순 과장의 단순한 노인성치매로 오인되기 쉬운 '혈관성 인지장애의 진단방법',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김범태교수의 '뇌혈관외과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태도'에 관한 명강의가 펼쳐졌다.

'사랑의 인술에 함박웃음 가득' 농촌마을 의료봉사



지난 2011년 11월 12일(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30여명의 의료봉사단원을 이끌고 구미인근 농촌지역인 고아읍 구운초등학교를 찾아 무료진료를 펼쳤다.

이날 무료 진료는 고아라이온스클럽과 순천향병원이 합동으로 만든 행사로 라이온스클럽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병원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검사와 진료 및 약 처방을 하는 등 농민들의 건강을 보살폈다.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인공신장실, 최신형 투석장비로 확장 이전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병원장 조수호)은 최근 환자 편의 중심으로 인공신장실을 증축 이전, 지역 최고의 쾌적함과 여



유로운 시설, 그리고 최신형 혈액투석 장비를 보강하고 본격적인 투석에 들어갔다. 구미차병원이 지역 거점병원 확충(격리외래, 격리중환자실) 증축 공사와 함께 증축한 인공신장실은 기존의 224㎡(약 68평)의 투석실을 78㎡(약 24평)를 넓혀, 302㎡(약 92평)공간으로 확장 이전하고, 최신형 혈액투석기 26대를 설치해 명실공히 지역 최고의 혈액투석 의료서비스를 자랑하고 있다. 인공신장실은 최신형 혈액투석기로 혈액투석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석환자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혈액투석 환자에게 최대한의 편의와 안락함을 주는 인테리어, 환자 개인별 천정형 LCD TV를 갖추어서, 긴 투석시간의 무료함을 달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지난 2011년 12월 20일 병원 7층 강당에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2011년 하반기 자원봉사자의 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열성으로 봉사활동을 한 (주)삼성전자 한마음주부봉사단과 박은희 이미용봉사자의 3명에게 감사패와 부상으로 교직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원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뷔페 점심을 즐겼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예방의학과 이채용 교수가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특강과 '손으로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통'인 수화 공연, '즐겁고 신나는 소통'을 주제로 웃음치료 특강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통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기관평가 인증조사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인증마크' 지난 2011년 12월 26일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졌으며, 인증을 획득한 경북 최초 병원이 되었다.

이번에 획득한 의료기관평가 인증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조직 및 인력관리, 환자만족도 등 404개 항목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위 5가지 항목의 환자 및 직원안전 관련 인증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영역별로 인증기준의 충족률이 80% 이상이고, 조사 결과 전 항목에 걸쳐 우수성을 인정받으면, 4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 마크를 병원에 게시함으로 국가에서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등이 우수한 병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구미차병원은 이처럼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지난 1년 6개월 이상 병원장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인증조사 준비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해 병원의료서비스는 실질적으로 한 단계 향상되면서 경북에서 최초라는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원 인증패 교부식

구미차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 지난 1월 3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이규식)으로부터 인증패 교부식을 가졌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해당 의료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환자에게 우수한 진료체계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며, '의료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 84개 기준 40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철저한 실사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지역의사회 탐방

김 . 천 . 시 . 의 . 사 . 회

김천시의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비롯한

월례회의 정기모임을 개최해

오면서 주요 의료현안에

대처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교류증진에

힘쓰고 있다.

김천시 소개

경상북도 남서부에 있는 김천시(金泉市)는 동쪽으로 칠곡군·성주군·구미시, 서쪽으로 충북 영동군과 전북 무주군, 남쪽으로 성주군과 경남 거창군, 북쪽으로 상주시·구미시와 접한다. 수리적 위치로는 동경 128°04' ~ 128°09', 북위 36°07' ~ 36°11'에 있다.

동쪽에는 금오산(金烏山·977m)이 솟아 있고, 서쪽에는 남부부터 대덕산(大德山·1,290m) 삼도봉(1,177m), 황악산(黃岳山·1,111m)으로 이어지는 험준한 백두대간 분수령이 충북과 경계를 이룬다. 남쪽에는 국사봉·수도산·단지봉 등의 산지가 경남과 경계를 이룬다. 남동부에서는 성주군과의 경계에 형제봉(兄弟峰·1,022m)·염속산·백마산·염암산이 이어져 금오산에 이르고, 북으로는 광덕산·백운산·국수봉 등이 구룡지대를 이룬다. 백두대간의 추풍령·괘방령·우두령 등의 고개는 주요 교통로가 된다.

전체 인구의 35%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주요 농업지대는 개령평야와 금릉평야로서 곡창지대를 이룬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콩 등이나 해마다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무·배추·양배추·파·양파·방울토마토·참외·수박·포도 등 채소류와 과일류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포도의 경우 2003년도 생산량이 48,239t으로 전국 총생



김천



김천시의사회 역대회장

- 초대(1959) 김종호
- 2대(1960) 이병황
- 3대(1961) 안지열
- 4대(1962) 강중구
- 5대(1963) 이종구
- 6대(1964) 김태수
- 7대(1965) 이기택
- 8대(1966) 이종구
- 9대(1967) 이근영
- 10대(1968) 강영구
- 11대(1969) 정 우
- 12대(1970) 최병옥
- 13대(1971) 진정환
- 14대(1972~73) 강중구
- 15대(1974~77) 안지열
- 16~17대(1978~81) 김태수(김외과의원)
- 18대(1981~82) 배종호(배종호의원)
- 19대(1983~84) 강영구(강외과의원)
- 20대(1985~86) 김형근(고려의원)
- 21대(1987~88) 이재춘(이소아과의원)
- 22대(1989~90) 김 수(김수정형외과의원)
- 23대(1991~92) 이주원(이주원내과의원)
- 24대(1993~94) 이성우(남산의원)
- 25대(1995~96) 황 염(황산부인과의원)
- 26대(1997~98) 김태홍(김태홍산부인과의원)
- 27대(1999~00) 안길룡(안외과의원)
- 28대(2001~02) 허 석(김천방사선과의원)
- 29대(2003~04) 박경욱(박경욱내과의원)
- 30대(2005~06) 정근재(김천신경정신병원)
- 31대(2007~08) 김영권(김영권정형외과의원)
- 32대(2009~10) 이경엽(김천남산종합의원)
- 33대(2011~현) 최계정(동산연합의원)

산량의 13%를 차지했으며, 김천시 농업소득의 23%를 차지하는 주요 고소득 작물이다.

1914년 금산·지례·개령군 일원과 성주군 일부를 병합하여 김천군이 됐으며, 1949년에는 김천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김천군을 금릉군이라 했다. 1983년 금릉군 4개리를 김천시에, 금릉군 2개 리를 선산군에 편입하여 김천시를 13개 동으로 통합했다. 1995년 1월 김천시와 금릉군이 합쳐 도농복합형의 통합시가 됐다.

의사회 활동 및 주요사업

김천시의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비롯한 월례회의 정기모임을 개최해 오면서 주요 의료현안에 대처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교류증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는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성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민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례로 지난 2010

년 2월11일(목)에는 교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영육아원을 방문해 겨울철 난방비(주유권 7,000,000원)를 전달하고 원생 및 관계자를 격려하기도 했다.



2003년 8월 31일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삶의 터전인 집과 농경지를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을 돕기 위해 김천지역 긴급 수재민 구호대책회의를 즉각 소집하여 2개 진료반을 편성하여 9월 3일부터 1주일간 피해가 가장 심한 김천시 개령면과 지례면에서 무료진료와 현장을 방문하여 구호사업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으며, 모든 회원들이 술선수범하여 진료에 참여하고 수재의연금 모금에도 선도적 역할을 했다.

(정리 : 총무이사 정재호)

■ 임원명단

회장 최계정, 부회장 권오영 · 이상식, 총무이사 정재호, 학술이사 김우일 · 이경원, 기획이사 박용호, 보험이사 박중규 · 나승찬, 공보이사 이관형 · 현경훈, 섭외이사 신창진 · 제종석, 정보통신이사 강산경, 감사 석제홍 · 배창표

김천의 관광명소

1. 황악산

황악산은 해발 1,111m 비로봉을 중심으로 백운봉(770m), 신선봉(944m), 운수봉(740m)이 치솟아 직지사를 포근히 감싸준다. 산세는 평평하고 완만하여 비단같이 부드러운 편이며, 초입 일대 계곡 양쪽으로 늘어선 노송과



참나무가 하늘을 덮어 장관을 이룬다. 이 산은 김천시에서 서쪽으로 12km떨어진 소백산맥 가운데 위치한다. 옛부터 학이 많이 찾아와 황학산이라고도 불렸으나 직지사의 현판 및 택리지에는 황악산으로 되어 있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깊은 계곡에 옥같이 맑은 물,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설화가 아름답다.

2. 수도산

가야산 북서쪽, 김천과 거창의 경계에 우뚝 솟은 수도산(1,317m)은 가야산을 분수령으로한 비교적 높은 산으로 일명 불영산, 선령산이라고도 한다. 수도계곡은 구비구비마다 독특한 절경의 연속이고, 산기슭에는 바구니 스님들이 수행전진하는 청암사 승가대학이 있다. 정상 부근에는 수도암이 있다.

3. 직지사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에 위치하여, 아도화상에 의하여 도리사와 함께 개창되었다. 직지사의 주요 유물로는 석조약사여래좌상(보물 제319호), 대웅전삼존불탱화(보물 제 670호), 대웅전 앞 동서삼층석탑(보물 제606), 비로전앞 삼층석탑(보물 제 607호), 청풍료앞 삼층석탑(보물 제 1186)을 비롯하여 사적비와 괘불 영탱 등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4. 동굴관광농원

숲속 시냇가가 있는 주말 유양지로서 청소년 자연 학습장, 캠프장,

단체교육을 위한 세미나실, 야외수영장, 송어양식장, 방갈로, 원두막, 조용한 산책로가 있는 농원으로, 인근에 직지사(2km거리), 추풍령(7km)이 위치하여 연계관광을 즐길 수 있다.

5. 아천관광농원

농원에 들어서면 우선 드넓은 잔디밭이 녹색평원처럼 눈길을 끄는데, 총 5천평이나 되는 넓이여서 마치 골프장같은 느낌을 준다. 잔디밭 끝에는 골프 연습장을 설치해 고객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6. 김천 세계도자기박물관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은 김천 직지사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재일교포 2세인 복전영자(福田英字, 62세)씨가 서양자기, 크리스탈 등 1019점을 김천시에 기증하면서 만들어진 박물관이다.



김천의 특산물

1. 포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토양이 게르마늄을 함유하고 있어 맛과 당도가 뛰어나고, 추풍령 고개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과 일조량이 풍부하고, 밤낮의 일교차가 커서 포도재배지로 최적지임

2. 참외

기동 오복참외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축성재배로 일조량이 많고 건강한 토양에서 재배된 것으로 과실 껍이 깊으면서 색깔이 섯노란 참외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좋음.

3. 자두

삼산이수의 고장인 김천의 맑은 공기와 때 묻지 않은 토양에서 저농약과 화학비료 저사용, 제초제 미사용, 유기질 퇴비를 중점 사용해 재배된 자두입니다. 자두에는 탄수화물 비중이 높고 비타민 A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지역의사회 탐방

청 . 송 . 군 . 의사회

청송군의사회는
 청송군보건의료원과
 산하 6개 면의 보건지소 및
 청송교도소 내의 4개의
 부속의원이 있고,
 17개의 병원과 7개의 의원이 개설되어
 군민들의 진료에 임하고 있다

청송군 소개

청송군은 경상북도 동쪽에 영덕군·포항시, 서쪽은 안동시·의성군·군위군, 남쪽은 포항시·영천시, 북쪽은 영양군에 접한다. 1읍 7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청 소재지는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번지이다. 군을 상징하는 꽃은 사과꽃이고, 나무는 소나무, 새는 꿩, 동물은 수달이다.

지형은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동쪽과 남쪽이 높다. 북·동·남 3면이 산악으로 중첩되며, 그 여맥들로 인해 군내는 기복이 심하다. 동쪽에는 태행산·주왕산·무포산 등이 솟아 있고, 북쪽에는 비봉산, 남쪽에는 보현산·면봉산·구암산 등이 뻗어 있다.

용전천(龍纏川)은 지류인 주산천(主山川)을 부동면에서, 마평천(馬坪川)을 부남면에서 각각 받아들여 청송읍과 파천면을 지나, 영양군에서 진보면을 거쳐 안동시로 흐르는 반변천(半邊川)과 합류한다. 보현산에서 발원한 보현천은 현서면과 안덕면을 지나 현동면을 관류하는 늘천(訥川)을 합하여 안동시 길안면에서 반변천으로 흘러들어 간다. 북서부에 약간의 평야를 이루어 관개도 편리하고 토지도 비옥하다. 기후는 내륙에 위치하므로 기온교차가 심한 내륙성 기후로 연평균기온 11℃, 1월 평균기온 4.2℃, 8월 평균기온 24.9℃이고 연 평균강수량은 840mm이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청송군의회 역대회장

초대	김지영
2대(1974)	박영언
3대(1975~80)	송세윤(진보의원)
4대(1982~86)	김지영(대구의원)
5대(1987~93)	서근수(성누가의의원)
6대(1993~94)	이연수(대구의원)
7대(1995~00)	임태기(금생외과의원)
8대(2001~07)	정철(대구신경과의원)
9대(2008~현)	이주섭(삼성의원)

■ 임원명단

회장	이주섭(삼성의원)
총무이사	이충원(진보혈통중외과의원)

특산물로는 청송사과, 청송고추 및 청송 자연산 송이가 있고, 대표적인 축제로는 주왕산 수달래 축제와 청송 사과 축제가 있으며, 주왕산과 주산지, 약수탕(달기약수터, 신촌약수터)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명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리고 아이스클라이밍, 드라이 트링,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및 패러글라이딩 등의 산악스포츠가 개최되고 즐길 수 있다.

의사회 활동 및 주요소개

청송군의회 의료기관 현황으로는 청송군보건의료원과 산하 6개 면의 보건지소 및 청송교도소 내의 4개의 부속의원이 있고, 1개의 병원과 7개의 의원이 개설되어 군민들의 진료에 임하고 있다. 도내에서 적은 수의 의료기관으로 이루어진 의사회로 각 의료기관이 인구대비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친목 모임과 정기총회 등의 개최에 열악한 환경이지만 구성원들은 각 지역에서 의료현안 해결과 더불어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정리: 회장 이주섭〉

청송 관광명소 · 특산물

1. 청송사과

경북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청송은 전국 최고의 청정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무공해 지역이다. 연평균 기온이 12.6℃로 사과재배에 적당하며 생육 기간중의 일교차가 13.4℃로 육질의 치밀함과 색깔 내기 그리고 당도 향상에 아주 유리하다. 또 낙동강 상류 소우(少雨)지역인 까닭에 4~11월 일조시간이 1,520시간으로 일조량이 풍부하여 고운 빛깔의 사과를 만드는데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송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육질이 단단하며 다른 지역 사과보다 당도가 높아 “꿀사과”라고 불리는 만큼 이미 전국에서 청송명품 사과로서 자리를 메우고 있다.



김을 가져다주어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주산지의 가장 아름다운 배경은 바로 30여 그루의 왕버들 고목이 물에 잠긴 채 자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30여 종의 버드나무 중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왕버들은 숲 속에서 다른 나무와 경쟁치 않고 아예 호숫가를 비롯한 물 많은 곳을 택해 자란다고 한다.



2. 주왕산

주왕산은 설악산, 월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암산(岩山) 중의 하나이다. 주왕산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천년고찰인 대전사를 비롯한 사찰과 아름다운 계곡, 폭포와 굴이 있으며, 주왕산(720m), 가메봉(882m) 등의 산봉우리가 있다. 또한 공



원 내에 달기약수터와 아름다운 주산저수지(注山地)가 있다. 주왕산은 신라말부터 주왕이 은거하였던 산이라 하여 주왕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3. 주산지

조선 경종 원년 1720년 8월에 착공하여 이듬해에 완공한 농업용 저수지이다. 주산지는 내(內)와 외(外)가 공존하는 듯한 공간이라는 느

4. 약수탕

달기약수탕: 조선조 철종 때 금부 도사를 지낸 권성하 선생이 낙향하여 청송읍 부곡동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동리 사람들을 모아 수로공사를 하던 중 바위틈에서 꼬르륵 소리내며 솟아나는 물을 발견,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는데 트림이 나고 속이 편안하여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애용하기 시작하면서 약수터로 개발되었으며, 옛 지명이 청송군 부내면 달기동이라 달기약수라 불리게 되었다.



신촌약수탕: 조선조 말 조정에서 전국의 약수를 취검한 일이 있는데, 당시 이곳 약수물이 가장 무겁고 맛이 독특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밭고 탁 쏘는 탄산수의 자극미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변에 이 물을 이용한 닭백숙이 성업 중에 있으며 맛이 탁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방하고 있다.

지역의사회 탐방

영 . 양 . 군 . 의 . 사 . 회

영양군의사회는
 개원회원 2명과 영양병원,
 공보의 회원이 자리잡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진료에 임하고 있다.

영양군 소개

경상북도 북동부에 있는 군으로 1읍 5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쪽은 봉화군·울진군, 동쪽은 영덕군·울진군, 서쪽은 봉화군·안동시, 남쪽은 청송군과 접한다.

지질은 경상계(慶尙系) 퇴적암으로 신라통(新羅統)에 속하여 혈암·사암·역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지형을 이루는 영양군은 북쪽의 일월산 및 통고산, 동쪽의 백암산 등 1,000m가 넘는 태백산맥의 지맥이 군의 3면을 둘러싸고 있다.

산간내륙 지방에 있어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지형의 기복이 심하며 일조시간이 다른 지방보다 짧다. 연평균기온은 13.7℃, 1월 평균기온 7.6℃, 7월 평균기온 24.6℃이고, 연평균강수량은 940.7mm로 적은 편이다.

고지대이므로 10월 초에는 북부 수비면, 청기면 일대에는 서리가 내린다. 특히 겨울이 다른 지방보다 길고 눈이 오랫동안 남아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또한 영양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청록파(靑鹿派) 시인의 한 사람이며, 대표적인 한국 현대시인이고 국문학자였던 조지훈(1920~1968) 선생과 현대문학의 거장 이문열(1948~) 작가 등이 있다.



영양군의회 역대회장

초대	권정근(기독교의원)
2대	권형태(영양병원)
3대(1974~92)	권정근(기독교의원)
4대(1993~96)	권형태(영양병원)
5대(1997~00)	권정근(기독교의원)
6대(2001~03)	권영대(영양병원)
7대(2004~현)	류수영(영남의원)

■ 임원명단

회장	류수영(영남의원)
----	-----------

의사회 활동 및 주요소개

영양군의회는 경북 도내에서 가장 적은 회원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1974년 7월 10일 기록에 의하면 당시 회원으로는 권정근 회원(기독교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권형태(권의원), 김준원(수비의원) 회원이 개원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1974년 4월 18일에는 보건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들을 위해 400여 명의 환자를 위해 무료진료를 펼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개원회원 중 권형태(前 영양병원장) 회원은 제4대 경상북도의원 선거(1991. 6. 22)에서 영양군 제1선거구에 그 당시 57세로 민주자유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지역사회에도 왕성한 활동(1991. 7. 8 ~ 1995. 7. 7)을 펼쳤다. 현재 영양군의회는 개원회원 2명(류수영, 임상진 회원)과 영양병원(근무 2명), 공보의 회원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와 더불어 지역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으로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리: 회장 류수영〉

영양의 관광명소

1. 문인의 고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 현대 서정시인 '오일도', 현대소설가 '이문열' 등이 배출된 고택으로 문향의 고택이라 일컫고 있다.

2. 영양의 동맥 일월산

영양의 자연은 일월산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으며, 위로는 태백산과 연결되고 아래로는 청송의 주왕산과 맥을 이루고 있다. 정상 쪽에는 일자봉(日子峰 : 1,219m)과 월자봉(月子峰 : 1,205m)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일자봉에서는 맑은 날이면 울릉도와 동해바다가 훤히 보이고 경북내륙에서 해와 달이 솟는 것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다고 하여 일월산이라 불리며 원시림이 잘 보존돼 있는 곳이다.

3. 외씨버선길

영양과 청송, 봉화 그리고 강원 영월 등 4개 지역이 협력해 꾸며가는 명품 길이다. 이 길에는 자연의 속삭임이 있고, 역사의 아픔이 있으며, 새로운 숲의 치유와 희망을 전해주며, 민족 수탈과 조국 근현 대사의 한이 서려 있다. 게다가 이 길에는 농촌 들녘의 풍요로움과 고즈넉함이, 지역마다 내세우는 최고의 이야기들이 스며 있다.

4.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영양양조장은 살아있는 술 박물관이다. 현존하는 막걸리 양조장 중 가장 오래됐다. 1926년 일제시대 지어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누룩을 띄우는 건물은 벽과 천장이 두 겹에다 폭이 1미터쯤 된다. 그리고 벽 사이에 왕겨를 채워 건물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건물도 건물이지만 칠 벗겨진 주판이 놓인 낡은 책상, 비스듬하게 쌓인 국함(누룩 담는



상자), 삐걱대는 미닫이문까지 옛 것 그대로다. 문화재청은 이 양조장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양조장 현관문 위에 전화6이라는 작은 나무 푹말이 붙어 있다. 일제시대에 영양은 전화가 10대뿐이었다. 그 중에서 이 양조장에 여섯 번째 전화기가 설치됐다는 뜻이다.

5. 최초의 한글조리서 음식디미방

음식디미방(飲食知味方)은 1670년(현종 11년)경 정부인 안동 장씨(貞夫人 安東 張氏) 장계항(張桂香)이 쓴 조리서이다. 음식디미방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여성이 쓴 조리서이며, 한글로 쓴 최초의 조리서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전해오거나 장계항 선생이 스스로 개발한 음식 등 양반가에서 먹는 각종 특별한 음식들의 조리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17세기 중엽 한국인들의 식생활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귀중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영양의 특산물

• 영양고추

우리 한민족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되는 고추는 다른 채소보다도 많은 당질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으며 고추특유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은 많은 악리작용과 함께 인체의 신진대사를 돕는다. 1660년경 수비면 오기리에서 재배되고 있던 고추 중 고추꼭지가 우산형이고 끝이 뾰족하여 외관상 모양이 좋을 뿐만 아니라 품질이 우수한 것을 채종하여 자가재배하던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1965년 경부터 확대 재배되었으며, 전국 농산물품평회에 수비초를 출품하여 최우수상을 받음으로서 그 명성이 전국에 알려져 오늘날 영양고추가 된 것이다.



종교와 과학

거의 동물적인 생활을 영위했던 선사시대 때, 원시 인류는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의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 그때는 과학과는 전혀 다른 우주관, 세계관, 자연관 등이 인간을 지배했다. 자연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드리는 원시상태의 주술적, 신화적, 미신적 종교관이 서로 얽혀 혼재해 있었다.

이러한 고대문화의 세계관과 자연관 속에서 초기 인류는 우주와 자연, 인간과 생명을 이해하고 해석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래서 그 후 문화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의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17세기에 이르러서 근대 이성주의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면서, 방정식과 미지수에 \times 를 사용했다. 그 시대부터 서구 근대과학이라는 꽃봉오리는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사상은 철학이나 과학의 방법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데카르트는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려 노력하였고, 진리탐구에 열정을 쏟았다.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이며, 수학자이자 과학 혁명의 주도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이다. 아인슈타인은 그를 '현대 과학의 아버지'로 불렀고, 스티브 호킹은 '누구보다도 현대 과학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수많은 천체 중의 하나일 뿐이다.'는 것을 주창한 코페르니쿠스 등도, 똑 같이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울 수 있다.

지금까지 현대 과학 문명의 발전은 인류와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운명까지도 좌우할지 모를 정도로 혁명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21세기에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지식의 혁명, 이른바 제 3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과학 문명이 시작되고 있다.

20세기에 앨빈 토플러는 제 3의 물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초기 인간이 농경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킨 이래, 1만년 동안 (제 1의 물결)을 지나왔다. 그 후 산업 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으로 400년 동안 (제 2의 물결)을 경험하였다. 그러다가 이제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에 의해 (제 3의 물결)이라 불리는, 인류 역사상 큰 획이 되는 대변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원락 원장
포항, 장성노인요양병원

인간의 알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종교라고 믿는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종교와 과학은 지금 공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그 결과는 이미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가족 관계의 붕괴나, 가치관의 분열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류가 제 3의 물결에 대해 올바른 자세를 가진다면, 정신 체계를 새로이 이루어서, 바람직한 미래사회에 안착할 수 있다고 했다. 미래를 비판하지 않았다.

컴퓨터의 발전은 인간의 유전자를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현대 과학은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발달이 일취월장이다. 그래서 지난 400년은 '세계의 역사는 과학에 의해 독점 당하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토플러는 강연에서, "지나치게 과학의 발전에만 집착하지 말라. 과학의 발전에서 오는 폐단 즉, 인간성의 소실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충고를 해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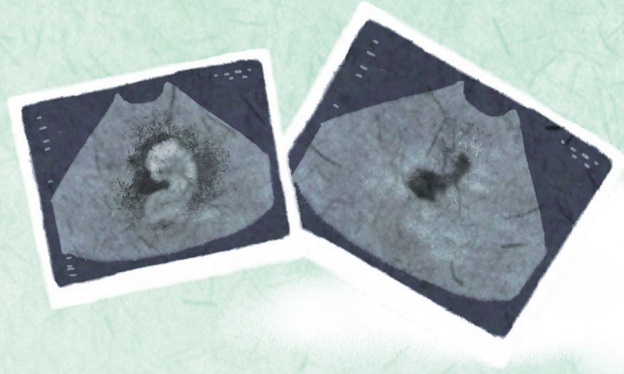
종교와 과학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종교가 우위에, 또는 과학이 우위에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지난 4백년간은 과학이 종교를 대신했다고 할 정도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인간이 과학의 혜택을 그만큼 입은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믿는 이상으로 과학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졌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과학이 인간의 기대와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풍요한 생활과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는 것과 같다. 사물에는 반드시 +와 -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리적일 수 없다. 인간의 지혜로 +와 -를 잘 조정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들은 인간을, 그리고 우주를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인체나 또는 우주에서, 전체의 백만분의 일 또는 무한대 분의 일에 불과할 것이다. 진화론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러나 그 학문도 신이 만든 학문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인간의 알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종교라고 믿는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종교와 과학은 지금 공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상부상조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들은 인간으로서의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힘, 무지의 암흑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나는 행복한 사진사

통.통.통...

초음파를 배에 가져간 후에 적막한 침묵을 깨는 희망의 소리가 들려온다. 두 번의 임신을 실패한 후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이제는 절망의, 포기 of 심정으로 있는 한 가정의 행복을 울리는, 그 어떤 소리와의 비교될 수 없는 행복의 소리다.

몇 번의 실패를 나도 이미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어지럽고 속이 안 좋다고 병원에 왔을 때 초음파를 보자고 하는게 얼마나 망설였는지.... 하지만 엄마의 뱃속의 아기집은 이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아기집에서 울리는 심장소리는 며칠간 당직으로 힘든 나에게 정신적으로 커다란 생명수와 같은 시원함을 안겨주었다.

통.통.통...

계속 아기의 심장소리를 들려준다.

이내 엄마의 눈기는 촉촉해짐과 동시에 눈물이 흐른다.

이런 행복감을 같이 느끼고 사진을 찍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진사가 아닐런지....

산전 진찰을 받는 동안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여 준다. 때로는 거꾸로 서있어서 안보여 주고, 때로는 손과 발을 얼굴에 대고 있어 안보여 준다.

어느 날은 머리를 교묘히 돌려 뒤통수만 보이고, 어느 날은 뱃줄까지 동원해서 가려 버린다.

“아이가 참 수줍은 가봐요.” 하는 좋은 말로 말을 건내보지만

초음파를 지켜보는 엄마나 사진을 찍으려고 용을 쓰는 나도 모두 안타까움이 전해져 온다.

“아가야..., 얼굴좀 보여봐.”

엄마가 나지막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 신기하게도 아기가 얼굴을 돌린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컷 찍는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사진의 한 컷을 남겨서 일을 보람 있게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든다. 그 어느 사진사와 달리 뱃속의 아이를 촬영하는 아기 받는 남자의 사진은 그래서 더욱 특별한 것 같다. 아이의 심장이 아프다. 아니 조그마한 구멍도 보이고, 심장을 돌아가는 피의 흐름도 심상치 않다. 아무래도 태어나면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초음파 볼 때마다 괴롭다. 그래도 위안이 된다면 심장 빼고는 다른 곳은 다 괜찮아 보인다.



황인철 교수
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
산부인과

아이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10개월의 추억은
끝이 나지만 건강한 아이의 얼굴은 내가 힘든 하루를
계속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물론 초음파를 보는 나의 실력을 백프로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다. 순간 아주 밝게 웃는 아이의 모습이 사진에 잡힌다.
늘 마음이 무거워서 안쓰러웠던 엄마의 표정에도 밝은 미소가 지어진다.

아이의 웃음은 태어나서도 예쁘지만 뱃속에서 짓는 웃음은 그야말로 백만불짜리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찌 유산을 생각할 수 있을까? 아픈 자신을 지우지 않고 정성껏 키워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것 같아 행복하다. 몇 해 전만 해도 입체 초음파를 찍으려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다. 여러 장의 사진을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로 나와야 되었으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상도도 그리 좋지는 않았다.

요즘은 4D, 한마디로 리얼타임 3D다. 사진을 찍고 입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 프루브를 대면 바로 실시간 입체 영상이 보인다. 하지만 역시 사물의 그림자를 판단하는 초음파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예쁜 태아의 얼굴에서, 흡사 외계인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엄마 맘에 드는 사진의 촬영작업은 난이도가 꽤 높다. 스마일...하는 사진사의 외침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새침한 아이이기에 더욱 난이도는 높아지지 않나 싶다.

그래도 비싼 초음파를 찍는 엄마의 손에 맘에 드는 사진을 하나 안겨주려고 나는 노력한다. 아마 다음 산전진찰을 올 때까지 보고 또 보고를 반복할 것을 알기에...

10개월간 매일 마주했던 태아를 제일 먼저 바라보는 아기 받는 남자의 직업은 정말 축복받은 일이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10개월의 추억은 끝이 나지만 건강한 아이의 얼굴은 내가 힘든 하루를 계속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지구는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곳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또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의 생존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도 동물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성필 과장
포항성모병원 정형외과

동물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자연스럽게 영위해 나갈 기본적인 권리와 생태적인 습성들을 자연으로부터 이어 받아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동물들은 자연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만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이용대상일 뿐, 같은 자연계의 생명체로서는 전혀 존중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한된 땅덩이 안에서 인류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인간의 입맛을 위하여 동물들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당한다. 이제 지구 안의 모든 동물들은 인간의 생존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 의한 희생물로만 여겨지며, 보호에 대한 인식마저도 인간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에 의해서든 아니면 그 자체적인 문제에 의해서든 60초마다 전 세계에서는 한 종류의 동물이 멸종을 한다. 1시간이면 60종씩 사라져 가고 있는 셈이다. 지금 보이는 동물들이 100년 후에도 볼 수 있을까?

반려 동물 또한 국민 소득의 증대에 따라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지만 국민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인식마저도 부채상태에 있다.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잔인한 동물 학대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묵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 안의 모든 동물은 유기적인 공동체이므로 이러한 동물들의 생존은 바로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됨을 우리는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나도 이전부터 동물 보호론자는 아니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었다. 단지, 어린 시절 개한테 물린 기억이 있는 정신적인 외상을 가지고 있어서 개를 무서워하는 한 사람이었다.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오게 한 계기는 와이프가 어느 날 데리고 온 2개월 된 치와와 한 마리 때문이었다. 개에 대한 정신적 외상을 가지고 있어 조그마한 강아지한테마저도 공포를 느껴 피하고는 했던 나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사람 사이에도 처음 보더라도 싫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이 강아지는 왠지 모를 친근감이 느껴졌다.

우리는 이 강아지에게 ‘꽂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 후 2년을 키우는 동안 이 강아지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갔다. 밤에 늦게 들어가도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며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너무 즐겁게 느껴졌다. 강아지를 키우는 2년동안 평범했던 우리 부부에게 ‘꽂지’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 동안 잘 보지 않던 동물농장 시정자가 되었고,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유기견 협회와 동물 보호협회에 기부를 하게 되었으며, 모피를 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채식주의자나 구두도 신지 않는 열성 동물 보호론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이정도 만으로도 큰 변화였고, 최소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었던 동물 보호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최근 가수 이효리의 유기견 사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동물 보호에도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공공연히 동물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

지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동물들이 없다면 인간의 생존조차 위협받지 않을까?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또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의 생존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도 동물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학대는 하지 않는 것이 지구라는 집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한다.

양동 마을

양동 마을에 눈이왔다
 차들도 운행을 포기한 날
 어렵게 발이 푹푹 잠기는 마을을
 촬영하러 찾아갔다
 내가 눈을 찍는 것인지
 눈이 나를 찍는 것인지
 마침내 두 눈에는 흰 눈만 남았다
 마시는 숨마저 하얗게 토해지던 그날의
 동동주 잔에는 백설이 가득 넘치고 있었다
 입설단비를 기다리며
 잔에 가득찬 눈을 채우다가 비우다가
 드디어 머리속이 하얗게 되자
 소나무도 기와지붕도 매화도 나도 눈이 되고 말았다

눈이 오는 날에는 양동 마을에 가서
 동동주를 마시자
 쟁쟁한 동천 소식 마시고
 눈사람이 되자

〈글·사진: 신명준〉



신명준 원장
 포항, 신명준외과의원

암벽등반 입문과 암벽등반의 소개

처음 암벽등반에 대한 원고청탁을 받고 올해 입문한 초심자가 암벽등반의 세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접하고 배워가는 즐거움을 알기에 여러회원님들과 저의 일천한 경험을 암벽입문기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춘석 원장
구미, 오연합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의원

녹녹치않은 의료환경속, 자칫 무료해지기 쉬운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우리는 항상 탈출을 꿈꿉니다. 좁고 어두운 진료실을 벗어나 더넓은 곳으로의 자유!

2011년 새해 첫일출을 눈덮힌 지리산일출을 본후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산에 대한 동경이 생겨난건 자연스런 현상이었으리라. '산을 알고싶다' 라는 막연한 소망을 품고 있던차에 대구등산학교 정규반에 입학하여 등산사, 등산장비, 등산예절, 산악안전 등등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암벽등반을 접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버티칼리미트나 클리프 행어같은 영화를 보면서도 '저 위험하고 힘든것을 왜할까? 나와는 전혀 무관한 딴 세상 얘기였으나 멀리서만 보던 바위에 밀착해서 촉감과 냄새를 느끼며 한발 한발 오르고 올라 봉우리에 서면 그제서야 산이 나에게 눈이 시릴만큼 멋진 풍광을 선물할때 암벽등반의 묘미가 나에게 느껴지고 도전해 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좀더 높은곳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언제나 말없이 묵묵히 그자리에 변함없이 버티어 서있는 바위가 인간의 부질없음을 꾸짖는 듯하고 자연에게서 겸손을 배우게된다. 다시 대구 등산학교 암벽반에 입학해 암벽등반시의 주의사항, 암벽장비의 사용법, 다양한 매듭법(피셔맨매듭, 까베스통매듭, 보울라인매듭, 푸루직매듭등), 확보법, 하강법등을 교육수료후 새내기 산악인으로써의 첫발을 딛게된다.

이른 새벽 배낭에 암벽화, 자일, 벨트와 암벽장비를 챙기고 산행후 바위까지 어프로치하여 첫발을 내딛고 일어설때는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묘한 떨림이 있다. 그러나 중력에 거스리는 인간의 행위는 항상 댓가를 요구받는다. 거칠어지는 숨소리, 손가락과 발가락의 고통, 팔의 펌핑(근육이 과도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 젖산이라는 노폐물로 인해 근세포의 산소공급이 불가능해져 힘을 쓰지 못하는 것), 추락까지도 하지만 이 모든것을 보



“ 암벽등반은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지만 결론은 역시 ‘오르는 것이 즐거워서’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



상해줄 시원한 바람이 정상에서 나를 반겨준다.

이후 국내 유명산을 찾아 암벽등반의 묘미를 즐기고있다. 한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한가지를 잃는법! 주위의 만류, 특히 가족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아서 이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은 당연함이라.

주변 사람으로부터 ‘암벽등반은 왜 하는가?’ 라는 물음은 많이 받는다. 그것은 왜 산에 오르는가 하는 물음과 같다. 그것은 또 골프를 왜 하나, 농구를 왜 하는가 하는 물음과 같은 것이다. 암벽등반은 얼핏 절벽이라는 그 독특한 환경, 즉 위험과 고난,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한다는 모험 때문에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지만 결론은 역시 ‘오르는 것이 즐거워서’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고난을 겪는 것이 즐겁고, 위험한 것을 하는 것이 좋아서, 아무 댓가도 없는 오름짓이 좋아서, 어렵고 힘들게 즐거워서, 어쨌든 즐거워서...

현대문명을 살면서 인간은 야성을 모두 잊어버리고 한없이 나약해지고 있지만 어린 애들을 보면 걷고 뛰고 높은곳을 자꾸 오려려는 것을 보면 자연을 향한 야성본능은 남아있는 것 같다.

암벽등반은 이같이 본능에 따른 오름짓이고, 즐거운 놀이이며 어리석은 짓이기도 하다.

암벽등반은 아마도 어린 시절을 못잊어 하는 개구장이 어른들이 벌이는 즐거운 놀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군살이 빠지고 운동량이 많아 건강이 좋아진다. 암벽등반은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전신을 이용하여 오르게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고 근력과 지구력이 강해지며 균형잡힌 몸매가 형성된다. 암벽등반을 할 때에는 정신집중을 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 특히 의지력이 약하거나 소심한 사람에게는 강한 정신력과 인내심을 길러

준다. 나 역시 암벽등반을 시작한후 체중조절과 근력강화, 당뇨조절이 가능했다.

암벽등반은 암벽표면에 나있는 틈새나 돌기 등을 손으로 잡고 발로 디디며 오르는 것이다. 중력을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암벽을 혼자서 오르는 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우리가 말하는 암벽등반은 대개 두사람 이상이 등반하며 한사람이 오를때 다른 한사람은 로프와 확보물로 등반자의 추락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일반적으로 선등자(앞서 오르는 사람)는 자신의 안전벨트에 로프를 묶고 이미 개척된 루트를 따라 오른다. 그 루트는 개척자가 위험요소마다 볼트나 하켄등의 고정 확보물을 설치해 놓았지만 크랙일 경우엔 그렇지 않을수도 있어 너트나 프렌드등의 유동확보물을 자신이 설치하며 올라야한다. 선등자가 추락했을 때에는 확보자가 로프를 자기의 확보기로 제동시켜 선등자의 추락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선등자의 등반거리는 사용하는 로프 길이에 따라 40미터 안팎에서 마치게 된다. 이것을 ‘한 피치’라고 하는데 매 피치마다 선등자나 후등자가 상호 확보를 받으며 오르는 것이다.

암벽등반은 암벽만을 손으로 잡고 발로 딛고 오르며 추락거리를 줄이기 위해 확보물을 설치하지만 아주 어려운 부분에서는 확보물을 잡고 오를수도 있다. 전자는 자유등반에 속하고 후자는 인공등반에 속하는데 이제는 그 등반방식이 완전히 구분되어 행해지고있다.

암벽등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꽤 많다. 그러나 몇가지 궁금한 것들이 그들을 주저하게 한다. 잡을 것도 디딜 곳도 없는 바위벽을 어떻게 오른단 말인가? 과연 나는 바위를 오를만한 특별한 힘과 기술, 그리고 배짱이 있는가? 만약 떨



어지면 끝장이 아닌가? 그리고도 저렇게 위험한 곳을 오르는 암벽 등반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결론을 먼저 말하고 싶다. 암벽등반은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위험이 아니라 곤란이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안전하게 암벽등반을 즐길 수 있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 때때로 다치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고는 대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데서 생기는 안전사고다. 사고는 언제나 무지(無知)와 부주의한 탓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암벽등반을 할 때는 보통 하는 등산과는 달리 위험한 것이 훨씬 더 많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고 암벽등반 사고가 일반 등산사고 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명한 암벽 등반가는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잘 알고 있고, 그 위험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알맞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준비를 통해 대비하고,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간다.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도전과 위험을 헤쳐나가는 일은 암벽등반의 생명일지 모른다. 선등자는 다소 부상의 위험이 있다고 할수 있으나 후등자

(뒤에 오르는 사람)는 안전하다고 할수있다. 때로 다치거나 죽기도 하지만 이런 사고는 불가항력적이라기보다는 안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쉽다. 물론 위험에 대한 도전과 위험을 헤쳐나가는 일은 암벽등반의 생명일지 모른다. 바위를 오르다가 어려운 곳(크릭스 라고함)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떨어질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순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오직 손잡이하나, 발디딤 하나에 온 신경을 모은다. 이 때 몸 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생겨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을 드러낼수 있게 해준다. 어려운 곳에서 냉정을 잃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힘을 충분히 써서 어려움을 이겨 나가면, 해냈다는 기쁨과 만족감, 그리고 안도감 같은 뒤섞인 감정이 솟아나게 된다. 이 때에는 엔돌핀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런것이 바로 암벽등반의 매력이다.

암벽등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배워서 얻는 기술'이다. 보통 사람들은 바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팔힘이 아주 좋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팔 힘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암벽등반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하는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암벽등반은 힘과 발란스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누구나가 할수있는 운동이다. 필요한것은 체력조건이 아니라 바위를 오르고 싶어하는 마음과 노력이다.

바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등반 장비가 필요하다. 암벽등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로 떨어졌을때 다칠 위험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고, 이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암벽등반 장비가 꼭 필요하다. 이중 기본이 되는 장비로는 로프, 암벽화, 안전벨트, 카라비너, 헬멧, 하강기구, 확보물, 인공등반장비 등등이다.

매듭은 로프나 슬링을 여러가지 목적으로 묶거나 걸 수 있도록 해준다. 암벽등반의 바탕은 바위를 오를때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등반자나 로프, 그리고 장비들이 서로 이어져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연결 방법

암벽등반은 모험을 즐기며, 위험속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스포츠이다. 사람들은 등반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줄이고 자연의 큰 힘을 이겨낸다.

가운데 하나가 매듭이다. 로프를 등반자의 안전벨트에 묶거나, 여러가지 용도로 쓰는 연결줄에 묶거나 확보물과 연결줄을 잇거나, 로프 두 줄을 잇거나, 로프를 확보물에 묶는 따위의 여러가지 용도로 매듭을 쓰고있다. 매듭은 쉽고 간단한 기초기술이지만 잘못 알고 쓰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

확보(Belay)는 등반하는 사람이 떨어질때 등반하는 사람과 이어진 로프를 다음에 올라가는 사람이 잡아 주는 기술이다. 이것은 영어의 빌레이(Belay)에 대한 정의지만 우리는 '확보(確保)'라는 용어를 '안전을 확보한다'라는 아주 넓고 추상적인 뜻으로 쓰고 있다. 바위를 오르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것은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떨어질 때 생기는 위험은 확보를 해야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암벽등반은 꼭 안전한 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등반을 끝낸 다음 우리는 꼭 내려와야 하고, 등반중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내려와야 하는 일은 종종 생긴다. 오를 때는 로프를 잡거나 확보물에 매달려 오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즉 등반하는 사람의 손과 발로 바위를 잡거나 밟고 오르지만, 오를 때와 같은 방법으로 내려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 몸은 원래 기어 올라간 길을 다시 기어 내려오기에 알맞은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걸어서 내려올 수 없을 때 로프에 몸을 의지해서 내려 오는데, 이것을 하강(Rappelling)이라고 한다. 하강은 오르는 것보다 훨씬 쉽지만, 간단하면서도 매우 위험한 일 중 하나이다. 등반중의 위험은 먼저 기술적인 문제로 떨어져야

상황이 발생하며 이것은 확보라는 시스템으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하강은 로프에 의지해 항상 체중이 아래로 실려 있기 때문에 하강은 문제로 하강자가 땅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하강은 처음부터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배워야 하고, 노련한 등반가일수록 하강을 더욱 신중하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등반 역시 인생과 닮아 있어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정점에서 얻는 희열은 무엇보다도

비견되지 않으나 하강(하산)시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암벽등반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려운 바윗길을 오르려는 용기나 목숨을 건 모험에 필요한 용기가 아니라 나도 그 사람들 처럼 암벽등반을 시작해 보겠다는 용기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는 이유로, 아니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이유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 시키려고 한다. 진정 하고싶은 마음이 있고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암벽등반이다.

암벽등반을 배우는 방법에는 세 갈래 길이 있다. 암벽등반 경험이 많은 사람과 같이 산에 다니면서 배우는 방법과 암벽과 빙벽등반을 주마다 하는 전문 산악회에 들어가서 훌륭한 선배들에게 배우는 방법, 그리고 개인 등산교실이나 등산학교에서 배우는 방법이 있다.

암벽등반은 모험을 즐기며, 위험속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스포츠이다. 사람들은 등반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줄이고 자연의 큰 힘을 이겨낸다. 자연의 위험은 그 위험을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지를 모르면 곧 재난이 된다. 또한 팀의 안전과 편안함, 그리고 계획했던 등반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사람을 이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육체적 정신적 정화에 산이 주는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산은 평등하여 술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에너지의 공급원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 속에 바위의 거친 표면이 살갑게 느껴지고 바위의 기를 느낄때 한층 건강한 나를 발견한다. 시정과 속세에 살다가 산에 올라 세상을 한번 내려다 보면 앞이 보인다. 정상까지 오르는 과정은 힘들지만 정상에서 자연이 주는 의미는 늘 새롭게 다가옴은 설레임이 아닐 수 없다. 저희 직종에게 암벽등반은 분명 쉽게 다가가기엔 부담스러운 스포츠지만 도전의식을 갖고 부딪혀 성취감을 맛볼만한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추어무선 (HAM)



안재현 원장
포항, 안재현의원

아마추어무선은 일정한 시험 절차를 거쳐 국가로부터 아마추어무선사 자격증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적절한 기준의 무선설비를 갖추어 놓고, 같은 취미를 가진 세계인들과 전신(모오스부호) 혹은 음성 등을 통하여 통신을 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실험 연구를 하거나 우정을 나누는 활동을 말하는데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제정된 국제전기통신협약(Radio Regulation; RR) 및 우리나라 전과법 시행령 제3조에는 “금전상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 기술의 흥미에 의하여 행하는 자기 훈련 통신과 기술적 연구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마추어무선을 “Amateur Radio”, “Ham Radio” 또는 “햄(HAM)”이라고 하며, 아마추어무선을 통하여 무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아마추어무선사도 일명 “햄(HAM)”이라고 부르고 있다.

HAM의 어원은 1908년 미국 하버드대학 아마추어무선국의 이름을 3명의 클럽멤버(Hyman, Almay, Murray)이름에서 따와 HAM이라 하였는데 그때부터 아마추어무선사를 HAM이라 불렀다고 한다. 사용 언어는 주로 HAM 용어와 영어가 공통 언어로 쓰이고 있지만, 대상 국가에 따라 그 국가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것, 영리적인 것, 어느 특정 종교를 화제로 삼는 것,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 등을 제외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교신을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HAM의 숫자는 300만 정도이며, 우리나라는 약 5만의 아마추어무선국과 10만의 아마추어무선사 자격증을 소지한 무선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다. 아마추어무선을 즐기는 방법에는 무선교신을 위한 장비를 만들고 실험하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경기하는 것 등의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한다.

1. 무선장비의 실험, 제작

새로운 무선장비를 조정, 실험, 제작하거나 오래된 장비를 수리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등의 즐거움이 있다.

2. Local Ragchew

가까이 있는 HAM들과 함께 이런 저런 생활 이야기나 취미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을 말하며, 아마추어무선의 선배들과 만난다면 기술적인 이야기나 아마추어무선의 경험담도 흥미 있는 화제가 될 수 있다.

3. 국내 또는 근거리 교신(Local QSO)

지상파로는 교신이 되지 않는 국내의 멀리 떨어져 있는 무선국과는 전리층의 반사를 이용한 교신이 가능하며, 계절이나 시간대에 따라 전국 방방곡곡과의 교신이 가능하다.

4. 원거리(DX; Distance) 교신

DX란 원거리와의 교신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외(海外)의 HAM과의 교신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다. 언어에 상관없이 HAM간에 사용하는 세계 공통의 간단한 표현만으로도 외국과의 교신을 즐길 수 있다.

5. 어워드 헌팅(AWARD HUNTING)

일반적으로 교신을 하고 나면 QSL카드(교신카드)를 주고받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아마추어무선사로서의 경륜이 쌓이게 되면 상당수의 QSL 카드가 모이게 되는데, 이 카드로써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AWARD(상장)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목표를 가지고 아마추어무선을 오래 동안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6. 컨테스트(CONTEST)

정해진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무선국과 교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파를 이용한 경기대회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교신한 무선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또는 국가 등의 숫자에 따라 득점이 증가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 교신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의미도 있다.

7. 리피터(REPEATER) 교신

리피터(중계기)라고 하는 자동 중계국이 전국에 고루 개설되어 있어, 휴대용 무선기기 등 저출력의 송수신기로도 어느 정도의 장거리 교신을 즐길 수 있다. 정해진 동일(同一) 주파수를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므로 리피터를 이용한 교신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8. ARDF(Amateur Radio Direction Finding)

전파 발신기를 산이나 들판의 숲속에 숨겨두고 수신기를 이용하여 그 발신지를 찾아내는 옥외 경기이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규칙(rule)을 정하여, 자동 발신기 5개를 숨겨두고 차례로 이것을 찾아내는 경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국제 경기로 발전하고 있다.

9. 특수 통신(特殊 通信)

아마추어무선용의 인공위성을 이용한 우주통신이나 라디오 텔레타이프(RTTY), 정지화상(停止 畫像: SSTV), 아마추어 텔레비전(ATV), Data 통신(packet, AMTOR 등), 무선 팩시밀리(MINI FAX) 등의 화상통신 등이 있다. 마이크를 이용한 무선전화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응용한 통신도 즐길 수 있다.

10. 이동 운용(移動運用; Mobile Operation)

자동차, 선박, 항공기, 우주선 등에 무선기기를 장착하여 임시로 이동 중에 운용하는 이동무선국(mobile station)을 비롯하여, 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야산이나 해변에 안테나를 가설하거나, 거리를 이동 중에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난통신

천재지변으로 전화 및 인터넷의 통신망이 두절 된 현장에서 최후의 통신 수단으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체르노빌원전사고를 맨 처음 전 세계에 알린 것도 그 지역 HAM이였으며 성수대교 붕괴, 대구 가스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에서 HAM들이 각자의 통신 장비로 재난통신 활동을 한 바 있다.

필자는 중학교 시절부터 납땀인두와 테스트기 같은 공구를 가지고 인터폰이나 라디오 등의 전자키트를 조립하는 것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HAM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여러 여건상 HAM이 되지는 못 하고 지내오다 개업 4년차 때인 2001년에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따고 난 뒤 진료실 옆에 만든 무선실과 차량에 무전기와 안테나를 설치하고 무선국허가 신청을 하여 준공검사 후 호출부호(Call Sign) "6K5VTG"로 허가를 얻어 무선국 운영을 하고 있다.

주로 DX교신을 많이 하는데 전파를 이용한 교신을 하므

로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혹은 높은 산등의 지형지물이 방해가 되어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교신을 하기가 힘든 지역들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HAM이 없어 교신할 수 없는 지역들도 존재하게 된다. 이 지역들은 교신이 어려운 지역이니까 교신에 성공한 HAM의 수가 적고 교신을 원하는 HAM의 수가 많아 그런 지역을 Mostwanted Area라 부르며 교신성공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된다. 직접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이면 전파의 방향을 바꾸어 반사파를 이용한다던지 안테나의 성능이



1. 남극 킹조지섬과 교신후 받은 QSL카드
2. 북한과 교신후 받은 QSL카드
3. 필자의 안테나

나 전파의 출력을 높여서 시도하기도 하고 태양흑점 변화나 전리층 상태에 따라 교신이 가능한 시기에 맞춰 교신을 시도하기도 한다. 또 거주하는 HAM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북한, 무인도 등에는 다른 지역의 HAM이 여행이나 업무 때문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 지역에서 무선국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에 교신을 시도하는 것이다. 당연히 정보교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Mostwanted 지역에 대한 DX정보나 전파상태 및 태양흑점 변화등 전파기상에 대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2002년도 이전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도 Mostwanted 1번 지역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HAM이 없고 다른 나라 HAM이 방문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무선국 허가를 내 주지 않아 교신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유엔식량기구에서 북한에 식량보급을 위해 관리들을 파견했는데 그중 한사람이 HAM이었다. 식량이 부족했던 북한당국이라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당국이 업무시간외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무선국운용을 한다는 조건에 하에 허가해 주어 무선국을 운영하였다. Mostwanted 1번과 교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HAM이 교신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경쟁이 치열했다. 더구나 HAM이 운용하는 통신방식은 전화 같이 양방향으로 송수신이 동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 송신을 하면 한쪽은 수신하고 다시 송신하던 쪽이 송신을 끝내고 수신모드로 들어가면 그때까지 수신하던 쪽이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단방향 방식이므로 북한의 HAM이 특정주파수에 무전기를 열어 놓고 수신을 기다리면 다른 HAM들이 그 주파수로 자기콜사인을 송신하고 북한의 HAM이 자기 무전기에 들리는 수많은 콜사인중 하나를 택해 송신하면 선택된 HAM만이 교신을 하고 선택되지 못한 HAM은 그 교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북한의 HAM이 선택된 HAM

과의 교신이 끝나 다시 대기상태임을 알려주면 아직 교신을 못 한 HAM이 자기 콜사인을 송신하고 북한의 HAM이 수신하여 자기 콜사인을 송신해 주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교신을 시도하는데 적어도 1대 수천의 경쟁이므로 시간대에 따라서는 밤새 본인 콜사인을 송신하고 상대가 수신해 주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그러다 자기 콜사인을 송신해와 교신을 성공하면 그 기쁨이란 고생한 정도에 따라 아마 골프에서 적어도 버디나 홀인원을 했을 때 기분과 같을 것이다. 필자 역시 교신을 시도 했었는데 처음 2일간은 밤새 6K5VTG를 송신하고 기다려도 성공 못 해 전전공궁하면서 동료HAM들과 의견을 나누던 중 14Mhz대 단파전파의 특성상 북한의 평양과는 거리가 비교적 짧아 직접 평양 방향으로 전파를 발사하면 Skip 되어 전파가 지나쳐 버리므로 교신이 안 될 수 있다고 하여 전파를 히말라야산맥 방향(약320도)으로 송신하여 2002년 6월 8일 교신을 성공하였다. 말 그대로 가깝고도 아주 아주 먼 나라였다.

이처럼 관심분야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아마추어무선은 자신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전자, 통신공학에 대한 지식이 늘게 되며, 교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과 이야기 하게 됨으로써 다방면으로 친구들이 생기고, 전파를 통하여 세계를 누비며, 외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외국어 실력이 향상된다든지, 나이가 들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도 안방에서 무선장비와 더불어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과학적인 취미 활동으로 작고한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도 HAM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아마추어무선을 취미중의 왕(Hobby's King) 또는 왕의 취미(King's Hobby)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국가로부터 자격증과 허가를 받아야 즐길 수 있는 취미인지라 자긍심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회원분들이 아마추어무선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어 즐거움을 만끽하시고 On-Air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한다.

말도 안되는 법률안 개정안에 우려한다.

새해들어 지난해 12월 30일 통과된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사사회가 걱정과 우려로 온통 술렁이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기관에 근무할 수 없으며, 또한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등 정보를 누설한 사람이나, 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고 한다.

얼핏 보기엔 요즘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륜을 저버린 성범죄 소식에 건전한 사회 유지를 위한 필요한 법률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경악을 넘어 가슴속 깊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식일수가 없다는 회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

그것은 법 개정 취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사와 일명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으니 역지도 이런 역지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성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면 더욱 구체적인 데, 이것 또한 일반인들 대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 규정 중 취업 제한 직업군으로 의사가 포함되었다는 점

에서 의료 행위의 특수성이 깡그리 무시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성범죄자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사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의 배경에는 몇몇 의료인들의 윤리의식 결여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전체 의료인들에 대한 잘못으로 매도되고 여론 몰이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사회에서 의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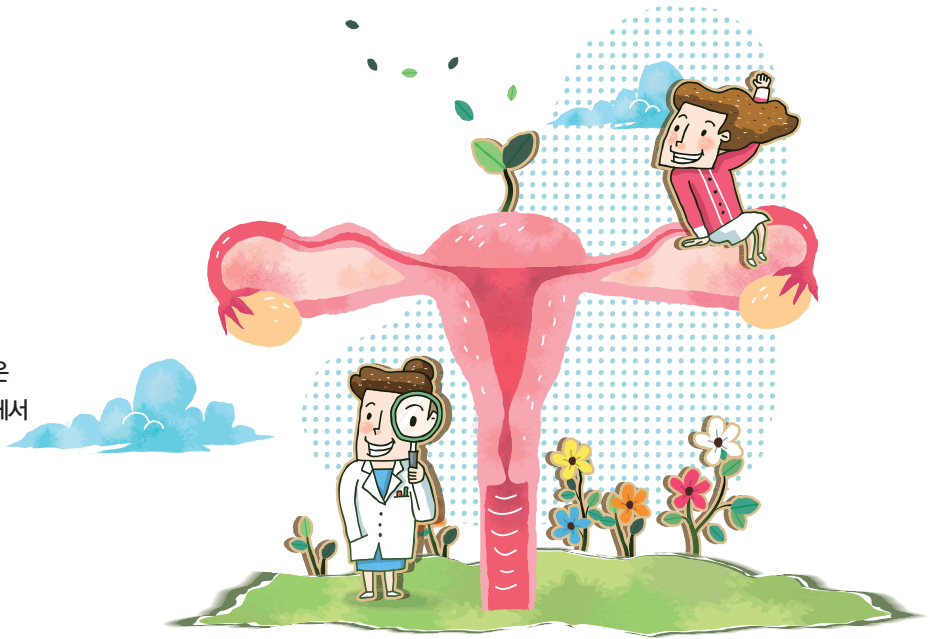
법과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우선이며 사회와 단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마련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법 개정 앞서서 의료 단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대책을 요구하면 얼마나 당당하고 무리가 없을 것인데, 이번 사태는 일방적으로 의사를 일개 범부로 전락 시켜버려서 생기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클지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겠다. 하루속히 관련 법안과 하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의사회 또한 의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징계 요청권을 가지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함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공보이사 김종영

자궁근종 색전술

대표적인 여성의 자궁질환인 자궁근종은
40세 이상 여성에서 약 20~50% 정도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종양이다.



대표적인 여성의 자궁질환인 자궁근종은 40세 이상 여성에서 약 20~50% 정도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종양이다. 자궁근종을 갖는 절반정도의 환자에서는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자궁근종은 비정상적인 출혈, 골반통, 골반부 불편감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재발하는 비정상적인 출혈, 빈혈, 종괴 압박으로 말미암은 골반부 통증이나 불편감, 또는 비뇨기계 압박 때문인 빈뇨, 재발하는 방광염, 또는 수신증(hydronephrosis)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작용제(GnRH-agonist) 등의 내과적인 호르몬치료가 자궁근종과 관련된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소실시키는 치료로 우선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질 건조증, 두통, 우울증,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과 더불어 보통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근종절제술이나 자궁적출술 등 수술적 치료가 부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근종절제술은 약 25% 정도에서 재발하며 전신마취와 개복에 따른 위험이 있으며 특히 자궁적출술은 자궁을 보존하지 않는 근치적 수술로 마취나 수술로 인한 위험뿐 아니라 불임과 여성의 성 상실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궁동맥 색전술은 1970년대부터 산후출혈 치료에 이용되었으며 자궁근종 치료에는 1995년 Ravina 등이 내과적 치료에 실패한 증상을 갖는 자궁근종 환자에서 자궁 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여 많은 환자에서 증상 호전을 보였다고 처음 보고하였다. 그 후 수술적 치료보다 적은 1% 미만의 시술 관련 합병증과 짧은 입원기간으로 월경과다, 골반통, 압박증상(pressure symptom) 등의 증상을 갖는 자궁근종의 치료방법으로 근종절제술이나 자궁적출술 등 기존의 수술적 치료를 대체하는 치료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양승부 교수
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
영상의학과

1. 자궁근종 색전술의 기전

자궁동맥을 차단함으로써 자궁동맥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는 근종의 혈류를 차단하여 근종 허혈에 이은 출혈성 경색과 유리질 변성(hyaline degeneration)을 가져와 이로 말미암은 근

자궁근종 색전술후에 많은 경우에서 성공적인 임신을 보고하고 있으며 Tropeano 등은 40세 이하의 여성에서 자궁근종 색전술 후 난소보유능(ovarian reserve)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여 생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종 체적 감소로 월경통, 골반통, 주변 장기압박 등 다양한 증상 호전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근종의 허혈, 경색 및 변성과 이로 말미암은 근종 체적 감소는 시술 직후부터 시작되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길게는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알려졌으며 일반적으로 시술 후 3~6개월 후에 자궁근종 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5년 이내에는 잘 재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시술

다른 혈관의 색전술과 마찬가지로 편측의 대퇴동맥을 천자하여 4~5 Fr 카테터로 양측의 내장골동맥을 선택한 후 혈관손상이나 혈관수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3 Fr 미만의 미세카테터로 양측 자궁동맥을 초선택한 후 조영제가 5~10번의 심장박동 동안 정체가 있을 정도로 색전물질을 주입한다. 색전물질로는 PVA particle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355 미크론 이하의 PVA particle은 심한통증과 난소동맥의 색전으로 인한 난소기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통상 355~700 미크론의 입자가 주로 사용된다.

3. 합병증

자궁근종 색전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은 골반부 통증이 가장 흔하다. 이는 정상 자궁조직의 허혈에 의해서 또는 근종의 괴사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ketoprofen 등의 소염진통제나 morphine, Demerol 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의 근주, 혹은 정맥내 주사로 조절할 수 있으나 간혹은 마취통증과 등에 의뢰하여 통증조절 장치를 시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외 발생하는 대부분의 합병증은 혈관천자와 관련한 혈종, 동맥바리, 동정맥루, 천자부위의 감염 등의 발생과 조영제에 의한 알러지 반응 등이다. 그 외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pyometra, salpingitis 등의 자궁감염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술 전, 후로 광범위 항생제의 투여가 필요하며 지속되는 복통과 고열이 있을 경우에는 초음파, CT, MRI 등의 영상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난소기능부전이 약 2~7% 정도에서 오는 수가 있으며 대개 45세 이상에서 생긴다. 색전술시 원하지 않는 색전물질이 난소로 유입되어 기능부전이 온다는 견해와 자궁적출술 후 조기폐경이 오는 경우와 같이 자궁이 난소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궁자체에 대한 색전으로 자궁의 기능저하로 인한 난소의 기능저하를 초래하여 발생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아직도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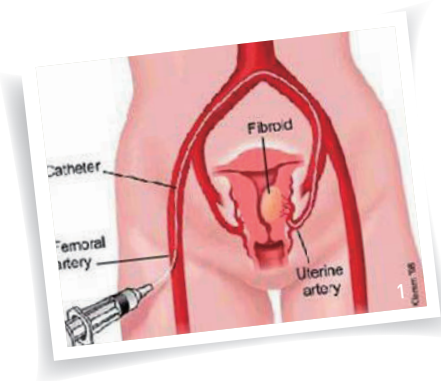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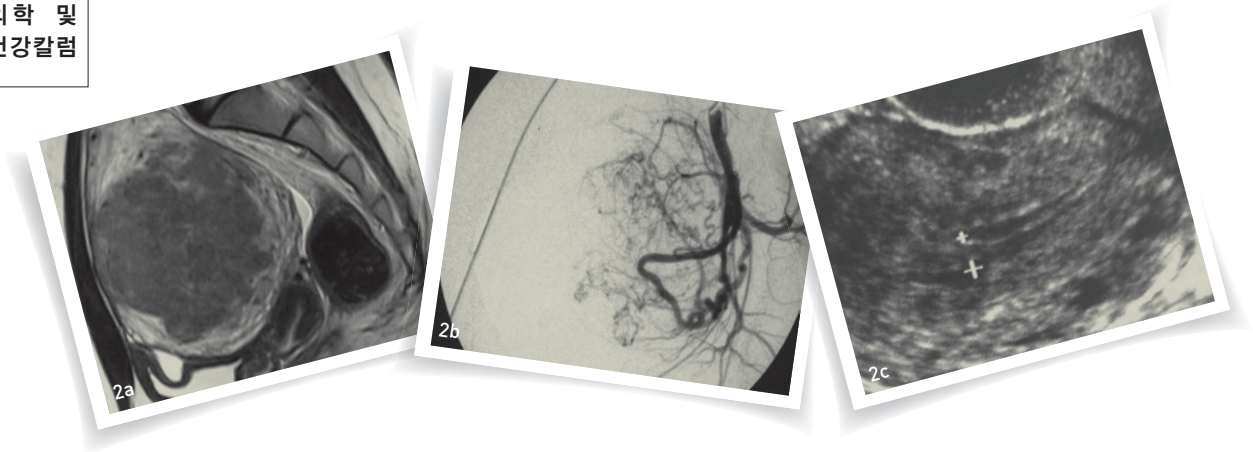


Fig 1. 자궁근종색전술의 모식도

4. 자궁근종색전술의 치료 효과 및 치료 효과 예측

일반적으로 자궁근종 색전술후에 과다 월경증은 83~90%, 생리통은 77~79%, 종괴효과에 의한 증상은 86~93%에서 개선되었고 시술 만족도는 91~97%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자궁근종 색전술후 근종체적 감소는 42~73%, 자궁 자체는 33~55%로 이러한 체적감소는 시술 후 5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치료효과 예측에 대하여서도 많은 연구보고들이 있으며 Spies 등은 자궁근종의 성공적인 치료와 관련한 인자에 대한 연구에서 근종 위치가 점막하인 경우 체적감소에서 벽 내 혹은 장막하 근종보다 더 효과적이었으며 근종 체적이 작은 경우가 큰 경우보다 체적 감소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여 근종위치나 체적 등의 인자와 관련하여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Fig 2a. 자궁근종색전술전에 촬영한 MR 영상(T1 강조 조영증강영상, 시상면)
2b. 색전술시행전의 혈관조영술소견 (발달된 과다혈관의 근종이 보임)
2c. 색전술시행후의 초음파 영상소견

5. 자궁근종색전술의 생리와 임신에 미치는 영향

생리와 임신에 대한 색전술의 영향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자궁근종 색전술후에 많은 경우에서 성공적인 임신을 보고하고 있으며 Tropeano 등은 40세 이하의 여성에서 자궁근종 색전술 후 난소보유능(ovarian reserve)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여 생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서도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Walker WJ, Pelage JP. Uterine artery embolisation for symptomatic fibroids: clinical results in 400 women with imaging follow up. Br J Obstet Gynaecol 2002;109:1262-1272
2. Spies JB, Ascher SA, Roth AR, Kim J, Levy EB, Gomez-Jorge J. Uterine artery embolization for leiomyomata. Obstet Gynecol 2001;98:29-33
3. Pelage JP, Le Dref O, Soyer P, Kardache M, Dahan H, Abitbol M, et al. Fibroid-related menorrhagia: treatment with superselective embolization of the uterine arteries and midterm follow up. Radiology 2000;215:428-431
4. Ravina JH, Herbreteau D, Ciraru-Vigneron N, Bouret JM, Houdart E, Aymard A, et al. Arterial embolisation to treat uterine myomata. Lancet 1995;346:671-672
5. Sterling KM, Vogelzang RL, Chrisman HB, Worthington-Kirsch RL, Machan LS, Goodwin SC. Uterine fibroid embolization: management of complications. Tech Vasc Intervent Radiol 2002;5:56-66
6. Seung Boo Yang, Dong Erk Goo, Yun Woo Chang, et al. Early ultrasonographic findings after a uterine fibroid embolization: the value of differentiate from procedure-related uterine infection. J Korean Radiol Soc 2008;58:297-302
7. Seung Jun Park, Gi Young Kim, Seung Boo Yang, et al. A case of transvaginal expulsion of intramural leiomyoma after uterine artery embolization.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6;11:2438-2444
8. Jeong Bum Choi, Ji Hoon Yoo, Seung Boo Yang, et al. Bilateral uterine arterial embolization for treatment for uterine myoma.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6;11:2310-2315
9. Seung Boo Yang, Young Jin Jung, Dong Erk Goo, et al. Usefulness of modified intravenous anagelsia: initial experience in uterine artery embolization for leiomyomata. J Korean Radiol Soc 2006;54:259-264
10. Seung Boo Yang, Han Hyeok Im, Yun Woo chang, et al. Ovarian protection by selective coil embolization of a uteroovarian anastomosis before uterine fibroid embolization: a case of two cases J Korean Radiol Soc 2006;55:229-233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1년 10월 ~ 12월)

포항시

도영민 · 류태영 _ 트트연합통증의학과의원
(791-841) 포항시 북구 죽도동 52-2
굿모닝메디칼센터4층
T. (054)273-0001 / F.273-0033

이재운 _ 경대연합의원
(790-853)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2리 417-1
T. (054)274-0083

이광원 _ 서울화인의원
(790-863) 포항시 남구 해도동 172-26
T. (054)272-5482

경주시

남경원 _ 남정형외과의원
(780-946) 경주시 성동동 72-2
T. (054)749-9119 / F.749-3443

김천시

최동식 _ 김천감문병원
(740-852) 김천시 감문면 남곡리 251 1층
T. (054)437-2700 / F.437-9297

구미시

안성우 _ 아미엘연합의원
(730-824) 구미시 옥계동 834-2
T. (054)475-7582

영주시

이윤영 _ 영주삼봉정신건강의학과의원
(750-901) 영주시 가흥1동 1381-55
꽃동산농협2층
T. (054)634-7600 / F.734-7667

상주시

조성훈 _ 우리연합제통의원
(742-020) 상주시 성동동 645-1
T. (054)533-7600 / F.533-7620

경산시

제갈부범 _ 화이트필의원
(712-060) 경산시 중방동 519-1 4층
T. (053)815-8866 / F.815-8896

이승현 · 김정현 _ 이김신경과의원
(712-804) 경산시 중방동 863-3 4층
T. (053)811-8200 / F.811-8220

청도군

이세종 _ 우리제통의원
(714-802)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800-4
T. (054)372-3911 / F.371-3911



유용한 인터넷사이트



- 현재 세계 각지/전국 날씨 <http://www.w365.com>
- 오늘의 주요 신문 기사 http://issue.media.daum.net/society/0807_today/index.html
- 전국 전화 번호 검색 <http://ollehmap.paran.com>
- 전국 우편 번호 <http://www.zipfinder.co.kr>
- 양력-음력 변환 <http://www.zipfinder.co.kr>
- 서양-한국 단위 변환 http://www.powerindex.net/U_conv/M_conv/01.htm
- 운세와 바이오리듬 체크 <http://fortune.chol.com/wwwhome>
- 대구 광역시 교통 안내 <http://www.gobus.pe.kr>
- 대구 북부/동부 정류장 http://www.gobus.co.kr/bus.asp?src_gubun=north
- 전국 지하철 안내 <http://www.websubway.co.kr/subway>
- 전국 고속버스 안내 <http://www.kobus.co.kr/web/main/index.jsp>
- 세계 주요도시 시각 비교 <http://timeanddate.com/worldclock>
- 인터넷 사전 검색 <http://jms5271.com.ne.kr/dictionary.html>
- 한국의 산 <유료> <http://www.koramt.co.kr>
- 작명서비스 <https://www.name21.co.kr>

마지막 편집회의를 마치고...

오늘 마지막 편집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일년에 한번 내던 회보를 분기별로 내는 일은 솔직히 적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때 실을 내용을 정하고 원고를 청탁 독촉하여 교정하고 인쇄소에 넘기는 바쁜 일들 속에서도 좀 더 나은 책에 대한 기대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새로운 회보에 맞게 처음 머리를 맞대 포맷을 짤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러 우리들(편집위원장 김재왕, 공보이사 김종영, 편집위원 문기혁·김종규·장태영)은 일을 마쳤다는 흥기분함과 이젠 우리들을 이어주는 일이 끝났다는 아쉬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졌습니다.

그간 관심과 격려를 주신 회원여러분께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수시로 편집회의에 참석하셔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오늘도 참석해 격려해주신 회장님, 그리고 실무를 맡아 수고했던 사무처의 박재영 처장님, 권순길 차장, 김태희 대리, 선진애드 관계자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때는 일이었지만 우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던 지난 시간은 이제 우리들 인생의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관심, 감사합니다.

편집위원 일동





Global 항고혈압 복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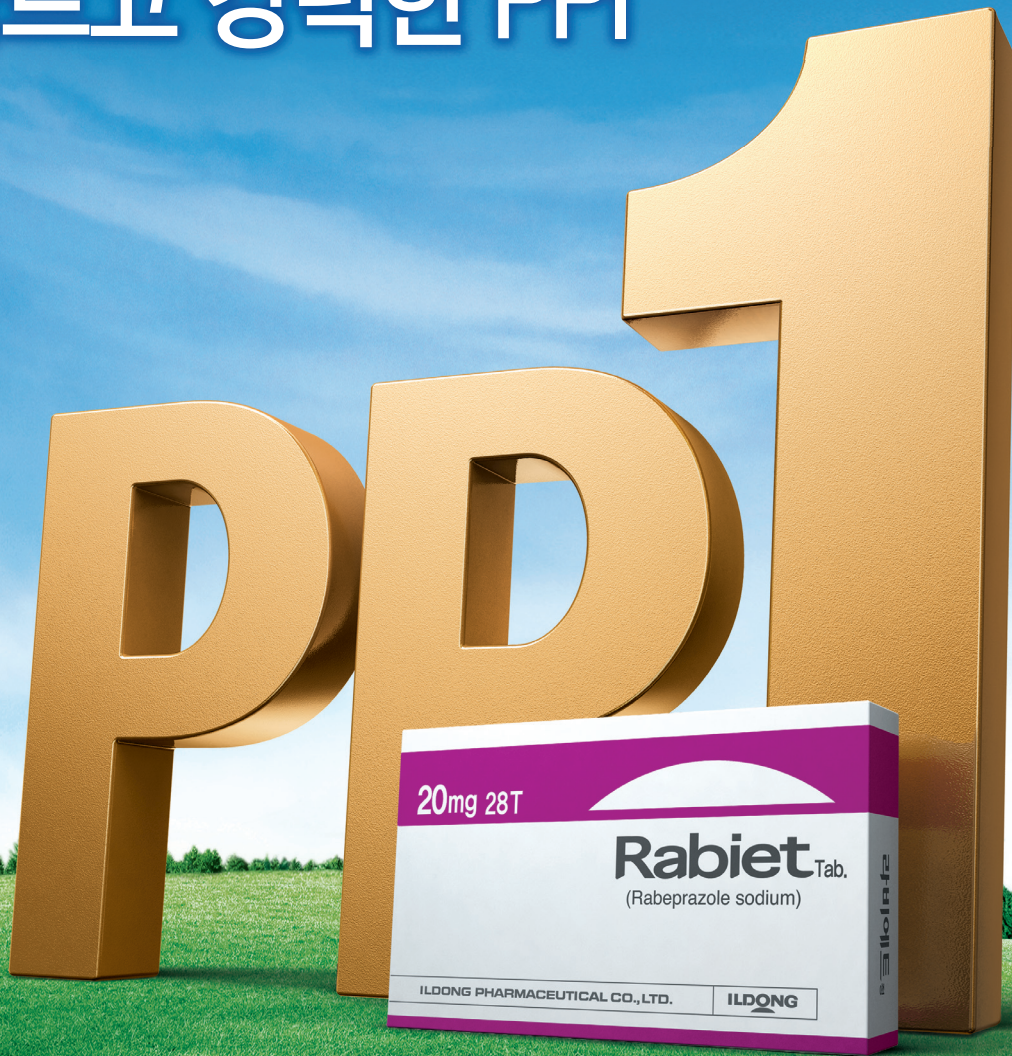
아모잘탄 글로벌 시장 첫 선적!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Global R&D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의료강국 제약강국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09. 6. CCB계열 암로디핀카실레이트와 ARB계열 로살탄칼륨 성분의 세계최초 복합개량신약 발매
- 2009. 7. MSD와 공동마케팅(아시아 6개국 수출계약 포함) 국내 최초 다국적제약사에 라이선스 아웃
- 2011. 5. MSD와 2차 수출계약체결로 총 30개국으로 확대
- 2011. 11. MSD와 3차 수출계약체결로 총 50개국으로 확대



일동의 특허기술로 자체 합성한 빠르고 강력한 PPI



타 PPI보다 빠르게 위산분비 억제, 뛰어난 위점막 보호작용!
항생제와 병용시 강력한 H.pylori 제균율!
강력하고 지속적인 산분비 억제로 GERD 치료효과가 우수!

Fast & Strong PPI
라비에트 정
RABEPRAZOLE 10mg, 20mg